

三國時代의 木造建築

金正基

序言

建築의 發生은 住居에서 비롯되며 住居는 그 地域의 地理的 條件에 크게 影響받아 發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住居는 그 시각에서부터 매우 耐寒의이며 閉鎖的인 建物이었다. 住居가 發生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生活이 變化 發展함에 따라 起居를 위한 住居建物 以外에 生活營爲를 위한 各種建築的 施設이 必要하게 되며 住居의 附屬建物이 發生하고 그들의 社會生活의 發展에 따라 宗教的 官衙的 建物들이 發生되어 建築 樣相이 점점 多樣해졌다.

先史時代 末期에 이르러 中國에서 發達된 新建築技法과 이에 따른 新資材들이 우리 領域에 들어왔다. 이들 技法과 資材들로 된 新建築은 점차 擴散되어 三國時代에는 거의 모든 地域에 新建築이 普及되었다. 그러나 당시 建築의 모두가 新建築으로 代替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시의 支配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의 邸宅이나 支配者의 權威를 나타내는 宗教的, 官衙的 建物들이 新建築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후 佛敎文化가 우리나라에 導入되자 各地에 세워진 寺刹建築이 新建築을 代表하면서 우리나라 建築相을 一變하였다. 그러나 一般庶民들의 住居 또는 그 附屬建物은 여전히 原始的 技法과 資材로 된 建物이었고 그 傳統은 近世에 까지 이어졌다.

이 글이 序論에서는 先史時代建築 즉 原始的인 技法 資材로 된 住居建築을 概觀하고 本論에서는 新建築技法과 資材로 된 三國時代의 木造建築에 관하여 이미 調査 確認된 資料를 바탕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韓半島에서의 住居發生은 舊石器時代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數十萬年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舊石器時代 住居에 대해서는 洞窟住居 以外에 두 곳의 住居地가 報告되어 있으나 ① 그것만으로 당시의 住居에 대한 普遍的 樣相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確實한 形態와 類形을 論할 수 있는 住居建築은 新石器時代 以後의 것이며 그 住居의 大宗은 竪穴住居이다. 竪穴住居란 地表에서 適當한 넓이와 깊이로 움을 파고 그 바닥을 住居面으로 삼고 움 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바람을 막는 그런 形態의 住居이다.

新石器時代의 竪穴住居는 그 平面이 거의 圓形 또는 圓形的인 方形의 것이었다. 竪穴의 크기는 보통 直徑 六m 內外, 깊이가 六〇cm 정도였다. 竪穴 바닥은 진흙으로 굳게 다졌고 中央에 불을 피우기 위한 화덕이 있었다. 화덕은 거의가 橢圓形으로 住居 바닥을 파고 그 周圍에 돌을 돌렸으며 그 크기는 長徑 一m 內外였다. 지붕을 支撐하기 위한 기둥은 竪穴 안쪽 벽 가까이 세웠다. 기둥은 竪穴 바닥에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기둥머리에 道里를 걸어서 서로 連結하고 竪穴 바닥 地表에서 긴 서까래를 道里에 걸쳐 지붕 骨格으로 하였다.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에는 촘촘히 옆으로 나무 가지등을 엮어매어 산자로 삼고 그 위를 짚이나 진 풀등으로 이었다. 따라서 이 時代의 住居 外觀은 圓錐形이었을 것이다. 이 時代의 住居에는 竪穴에 出入하기 위하여 階段式 또는 傾斜路式의 出入施設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階段式의 경우는 竪穴內에 傾斜路의 경우는 竪穴 밖으로 突出하여 施設되었다. 竪穴內部에는 화덕 옆과 그 밖의 適當한 곳에 큰 항아리 밑을 잘라 내어 거꾸로 묻은 格納施設을 갖는 것도 있었다.

靑銅器時代에서 初期鐵器時代에 걸친 住居 역시 竪穴住居가 많았다. 이 時代 竪穴住居는 平面形態, 竪穴內 施設, 기둥 配置 및 지붕 形態등

에서 新石器時代 堅穴住居와 뚜렷한 差異가 있었다.

堅穴 平面은 대부분이 長方形이고 正方形 또는 圓形의 것은 얼마 없었다. 堅穴의 넓이는 二〇m 内外의 것이 가장 많았고 一〇m를 單位로 變하며 작은 것은 一〇m 未滿, 큰 것은 八〇m나 되는 것도 있었다. 堅穴의 깊이는 五〇cm 内外의 것이 많았으나 三〇cm 未滿의 것도 있었다. 堅穴 内部에는 橢圓形 또는 圓形의 화덕이 있었으나 화덕은 堅穴內 한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졌고 때로는 두 곳에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화덕 周圍에는 돌을 둘러기도 하였으나 周圍에 아무 施設없이 바닥을 좀 파낸 것도 많았다. 堅穴 바닥에는 풀이나 짚을 깔고 生活하였고 壁面도 진 풀이나 짚을 나무가지로 엮어 덮었던 것 같다. 기둥은 구멍을 파서 세우기도 하고 바닥에 바로 세우기도 했으나 原始的인 礎石 위에 세우는 새로운 方法도 나타났다. 기둥 配置는 대부분의 경우 堅穴 長邊方向에 平行하여 三列 또는 四列로 세웠다. 이러한 기둥 配置로 보아 지붕 모양은 맛배지붕 또는 우진가지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붕은 역시 초가지붕으로 드물게 짚 위에 진흙을 바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時期 堅穴住居 지붕은 대부분이 처마가 땅에 닿지 않고 壁體가 地上에 들어나 그 위에 지붕을 덮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期에는 新石器時代 住居에서 볼 수 있었던 出入을 위한 施設이 나 큰 항아리를 문은 格納施設들은 보지 못한다. 아마도 出入施設은 나 무階段이나 돌등을 使用했고 格納施設은 獨立되어 住居와 分離된 것인 듯하다.

이 時期의 後期 즉 初期鐵器時代에는 堅穴住居 以外에 또 다른 形態의 住居가 있었다. 그것은 住居 바닥을 地表에서 상당히 높은 位置에 마련한 高床住居와 地上住居로 보이는 귀틀집이다. 高床住居는 高溫多濕한 地域에 많은 住居形式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원두막과 비슷한 것일 것이다. 귀틀집은 寒冷한 高原森林地帶에 많은 住居로서 통나무를 옆으로 포개어 쌓아 住居 壁體로 한 建物로 지금도 江原道以北地方과 鬱陵島, 智異山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先史時代의 住居를 비롯하여 倉庫 宗教建物 등은 모두 原始的 技法 즉 나무를 짜고 다듬지 않은 原木를 使用하고 흙이나 죽을 만들어 各部材를 짜올리지 않고 새끼나 끈 또는 넝쿨로 엮어매서 組立하고 지붕에는 진 풀이나 짚으로 이은 그런 建築이었다. ②

그러나 初期鐵器時代에는 韓半島 北쪽 中國 東北地方에 割居하던 扶餘族 사이에는 이미 中國에서 傳來된 發達된 新建築技法으로 만들어진 建築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를 짜고 다듬어 죽을 만들고 흙을 파서 各部材를 서로 짜올리며 지붕에는 기와를 잇고 기둥은 큼직한 礎石 위에 세운 그런 建築이었다. 이 發達된 新建築은 高句麗를 비롯한 三國에 傳해져 각기 個性있는 新建築으로 發展 定着되어 나갔다.

本論에서는 三國時代에 營爲된 이들 新建築의 모습을 당시의 遺構遺物 등 資料를 바탕으로 基壇部, 軸部, 屋蓋部로 나누어 考察하도록 하겠다.

基壇은 우리나라에서는 原始時代 建築을 除外한 모든 建築에 있었던 것이며 建築 本體가 安全하게 놓이도록 만든 土를 말한다. 宮殿建築이나 寺刹建築 등의 權威的 建築은 물론 住宅建築에서도 基壇이 있고 住宅의 附屬建物인 헛간, 외양간, 마구간 등에도 退化된 基壇의 痕跡을 남기고 있다. 基壇은 그 内部의 築土法, 外部의 外裝法 등에 地域的, 時代的 差異가 있다. 또 基壇 上面에는 기둥을 받치는 礎石이 配置된다.

軸部는 木造建築의 骨格이며 礎石 위에서 屋蓋 밑을 架構하는 部分이다. 軸部에는 기둥과 기둥을 安定시키기 위한 下枋, 中枋, 昌枋 등이 있고, 기둥 위에 架構된 斗栱 및 斗栱이 받치는 道里 등이 있다. 기둥 위에 斗栱을 架構하지 않는 建物의 경우는 기둥이 바로 道里를 받친다. 斗栱은 기둥 위에서 道里를 통하여 처마를 支撐하며 처마를 높이는 구실을 하는 架構材이나 斗栱의 形態가 建物의 外觀에 크게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建物의 裝飾的 效果를 나타내는 部材이기도 하다.

屋蓋部는 木造建築의 지붕 全體를 말하며 처마를 構成하는 部材, 지붕 形態를 構成하는 部材 그리고 지붕 上面을 構成하는 部材 등이 있다.

지붕을 잇는 部材는 기와인데 기와는 지붕 면을 덮는 솟기와와 암기와가 있고, 지붕의 용마루 끝이나 내린마루 끝 그리고 처마 끝을裝飾하는 各種裝飾瓦 등이 있다.

一、高句麗의 建築

先史時代 末期에는 高句麗를 建國한 基幹部族인 扶餘族이 新建築을 갖고 있었고 扶餘族의 傳統을 이어받은 高句麗는 建國 당초부터 新建築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③ 그 建築의 樣相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初期에는 扶餘族이 갖고 있던 建築과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그것은 中國 河北地方의 漢代 建築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인 지도 모른다. ④

高句麗의 建築樣相을 짐작하게 하는 資料로는 比較的 많이 發掘調査된 壁畫古墳의 建物圖와 建築 細部를 나타낸 그림 등이 있고 壁畫古墳의 墓室構造材에서도 얼마간의 木造建築 細部를 나타낸 要素가 있다. 또 建築의 基壇의 모습은 몇몇 發掘調査된 建築址 즉 寺址나 宮殿址 등의 遺構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가, 基壇部

(一) 基壇築土·高句麗의 建物基壇 內部 構築土를 確實히 알 수 있는 資料는 平壤 淸里廢寺의 八角木塔基壇으로 보이는 平面八角의 建物址 基壇이다. 그 報告文에는「殿址는 本台地 中央部에 隆起한 生땅인 岩盤을 利用하여 基壇의 基礎로 한 것이다. 그 樣態는 우선 岩盤을 八角形으로 깎아내어 台狀으로 만들어 周圍에 石材를 並置하여 基壇으로 한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高句麗建築遺蹟에 관한 發掘調査報告가 있으나 ⑥ 이들 報告에는 基壇 內部 構築土에 관한 明確한 記錄이 없다. 따라서 確認된 基壇 構築土에 關해서는 上述한 風化된 岩盤을 깎아내어 基壇 構築土로 代用한 例 뿐이다. 그러나 後說하는 百濟나 新羅에서 볼 수 있는 매우 精巧한 版築法에 의한 構築土나 精選된 粘土를 단

단히 다져서 만드는 築土 方法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오히려 이런 方法이 一般의인 方法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二) 基壇外裝과 形態·高句麗의 建物地調査 가운데 基壇 外裝에 관한 資料를 밝힌 것은 元五里廢寺와 平壤 羅城의 門址 調査報告 뿐이며 ⑦ 古墳壁畫에서는 遼東城塚 內城안에 그려진 한 建物이 參考가 될 뿐이다.

元五里廢寺에서는 遺蹟 中央部에 있는 高麗時代 建物址 東쪽에서 發見된 高句麗의 建物遺構이다. 그 報告書에 의하면「遺構의 가장 顯著한 것은 中央 高麗建物址 東쪽에 存在하는 巨大한 板石 二個 및 第六트렌치 東端 가까이에서 出土된 建物 基壇의 側石으로 보이는 板石列이다. 前者의 大板石은 南北으로 並置되어 長, 短 두가지의 差異는 있으나 幅 一·七〇m, 두께 二〇cm를 헤아리는 花崗岩으로 되고 上側面은 모두 平滑하게 다듬어지고 下底部에는 割石의 積心을 가졌다. 특히 그 南쪽의 것은 한쪽 隅角에 曲線으로 된 特殊加工된 屈曲이 있어 殿堂遺構의 一部임을 나타내고 있다. 後者의 基壇 側石이라고 보이는 遺構는 前期 大板石의 래벨보다 約 〇·七七m 낮게 板石을 並立한 것으로서 그 東端의 한 돌만은 他와 直角으로 놓여 北折하고 基壇의 屈曲된 部分에 該當한다. 바라보아서 西端의 缺失部를 延長하면 上記 大板石과 直角으로 交叉되고 前者의 東端 北折部가 더욱 北쪽으로 延長된 것으로 推測됨과 아울러 本來의 遺構를 생각하는데 示唆하는 것이다」라고 있다. 여기에 報告된 建物址는 揭載된 圖面으로 보면 中心遺構인 高麗時代의 建物址 西南에 西南向한 建物址로서 이 建物址 北쪽 左右에 連結되는 建物址가 있어 發掘調査된 範圍는 建物의 基壇 北邊과 東端 柱列 및 基壇 西쪽에서 北으로 接觸하는 建物의 礎石의 一部라고 보인다. 이들 基壇의 外裝은 塹은 板石이나 報告文에는 그 크기나 모습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報告된 圖版으로 判斷하면 이 板石은 높이 六〇cm 內外 두께 七~一〇cm 程度로 거칠게 깨어낸 花崗岩板石이며 그 表面도 거칠게 治石 되었다. 세워진 板石 밑에 地臺石이 놓인 것 같지 않고 또 그 近處의



圖 1. 元五里廢寺址 基壇遺構 및 礎石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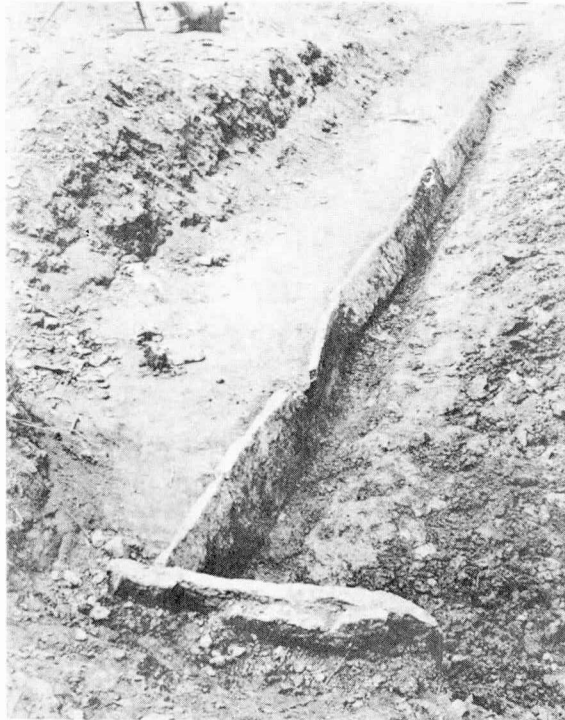


圖 2. 元五里廢寺址 基壇遺構

狀況으로 보아 甲石이 없는 形式인 것 같다. 따라서 이 建物址의 基壇은 石造基壇 즉 石材로 外裝한 基壇으로서는 가장 簡單한 形式인 板石을 나란히 세워서 만든 基壇임을 알 수 있다. (圖版 1, 2 參照)

基壇 上面의 外裝에 있어서는 上記 元五里 遺構의 南北으로 並置된 두장의 大板石이 그의 한 遺構인 듯 하나 그 實態는 알 수 없다. 基壇 上面의 外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特殊目的을 갖는 建物이기는 하나 平壤 萬壽臺의 城門址가 있다 ①. 門址란 特殊施設의 基壇 上面 裝置이기 때문에 一般建物基壇 上面과 同一視할 수는 없으나 看過할 수 없는 資料이다. 좀 길고 번잡하나 그 報告全文을 引用하겠다.

「본 門址는 一九三五年 三月 平壤神社 正面參道改築에 있어 그 東쪽 傾斜地를 切斷하였을 때 出土된 것이다. 이 發見은 地表下 三m의 土壤 中에 燒土、木炭을 混在하는 高句麗瓦片層이 있음에 단서를 얻어 發掘한 結果에 의한 것이다. 該當 瓦層의 底部는 正確히 水平으로 並置된

花崗岩板으로 된 一見 燒失된 小建物이 埋沒된 狀態를 나타내어 門址임을 생각케 하는 것이었다. 본 遺址는 거의 南面하고 있으며 그 바닥은 表土下 三m의 깊이에 있어, 前面 즉 그 南端 一部는 工事에 의해 調査以前에 벌써 破壞되어 버렸으나 他 主要部分은 거의 元狀 그대로 殘存하였다. 이것은 南北 七m、東西 四·八m의 長方形으로 바닥은 長方形으로 된 花崗岩板石을 벽돌같이 같이 交互로 깔고 있으며 그 表面은 平滑하게 治石 마감하였다. 바닥은 東西로 區分하여 花崗岩製의 門柱枋을 놓아 바닥의 兩側 즉 左右 門壁에 沿하여 方形礎石을 〇·五五m 間隔으로 敷設하였다. 各礎石은 모두 圓形의 楕圓形이 있어 모두 炭化된 木柱를 納했다. 이들 各 木柱는 모두 兩壁面에 嵌入되어 다만 內側을 向한 一面만이 기둥 모습을 나타내는데 不過했다. 各礎石도 역시 그 半面은 壁土中에 嵌沒되는 狀況으로 이 點 兩壁面에 柱列의 痕跡이 凹字形으로 連續하여 남아 있었다. 門柱枋 附近의 狀況을 보면 우선 門柱枋

兩端에 가까이 長方形의 홈 구멍 各 一個를 파고 여기 에도 特殊한 支柱가 있던 던 것을 느끼게 함과 아울러 더 그 더욱 안쪽에 一·四m의 사이를 두고 깊이가 門柱枋 下邊에 달하는 幅 〇·二八m의 두 個의 缺失部가 있고 그 밑바닥은 彎曲狀으로 加工되어 特殊한 用途를 위한 設備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車輿等의 通過에 便利하게 하기 위한 車輿의 間隔에 맞추어 만든 設備인지.

門柱枋 안쪽 左右에는 門扉를 支撐한 鐵製 軸을 嵌裝했다. 軸구멍은 半球狀의 凹形을 가지며 後述하는 門扉의 鐵製軸의 크기와 一致한다. 이 밖에도 門扉에 關連한 施設로는 門柱枋부터 二·一五m 떨어진 兩側에 가까이 바닥 위에 있는 구멍을 들 수 있다. 그 位置는 마치 門扉를 開放하여 門쪽을 兩壁에 닿게하였을 때의 位置와 一致하므로 門의 動搖를 막기 위한 支柱를 세운 구멍으로 보기에 알맞는 것이었다. 더욱이 門址의 構造上 特徵으로서 門의 안쪽 正面은 岩壁으로서 따라서 通路는 東으로 屈曲하여 通하게 된 點을 들 수 있다.

發掘調査時 門內에서 發見된 遺物에 바다에 쓰러져있던 門扉가 있다. 이것은 左右로 열게 된 두 짝 門으로 頑強한 木造로서 그 兩面에는 圓頭를 갖는 鐵製 釘을 對角線方向으로 配列한 元狀을 남긴 것이었다. 쓰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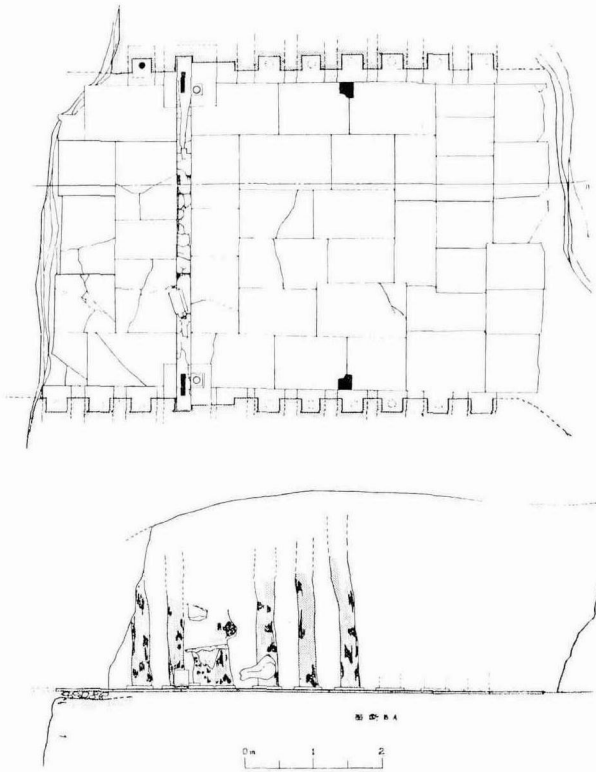


圖 3. 平壤羅城 平壤神社前城門址實測圖

진 門扉 위에는 燒土와 같이 많은 瓦片을 發見했다. 모두가 高句麗 特有的의 各種文樣으로 된 摺文을 갖는 平瓦 뿐으로 他의 高麗時代 瓦片類는 一片도 混在하지 않았다.」

高句麗羅城의 한 門의 基壇 모습이 이 報告文으로 거의 完壁하게 알 수 있으며 그 技法 資材 역시 당시로서는 最上級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門 左右 壁面에 기둥을 ○·五五m 間隔으로 密集 嵌沒시켰다는 點으로 볼 때 이 門址에 섰던 門은 아마도 樓門이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것은 기둥의 數가 單層門으로는 必要以上으로 많고 그것을 壁面 속에 嵌沒시켜 門 兩側 城壁과 一體가 되게 한 것은 門의 荷重이 크고 그 振動을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圖版 3 參照) 高句麗古墳壁畫 建物圖 가운데 基壇 外裝狀態를 짐작케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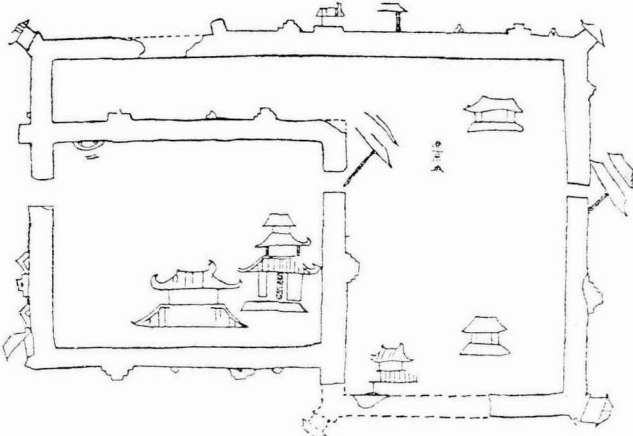


圖 4. 遼東城圖

遼東城塚 城廓圖의 內城 안에 그려진 單層建物圖이다. 이 建物은 용마루 끝에 鷓尾를 올린 우진 각지붕으로 보인다. 基壇은 梯形으로 表現되어 基壇 上邊에 한 줄의 데 두리를 돌려 兩側 傾斜 部內에는 雙線을 各各 두 곳에 垂直으로 그었다. 매우 簡單한 表現으로 그 그림만으로는 正確한 外裝狀態를 알기는 어려우나 基壇 正面 中央에 아무 表現이 없는 것으로 보아 兩端 傾斜 部가 階段이며 基壇 正



圖 5. 平壤清岩里廢寺址 八角殿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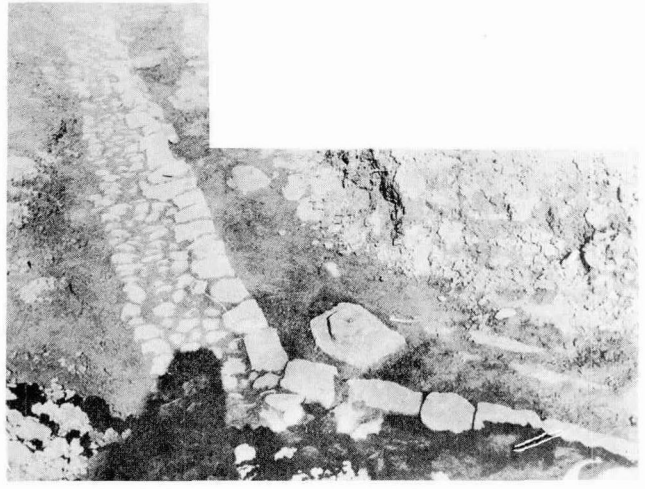


圖 6. 平壤清岩里廢寺址 八角殿址細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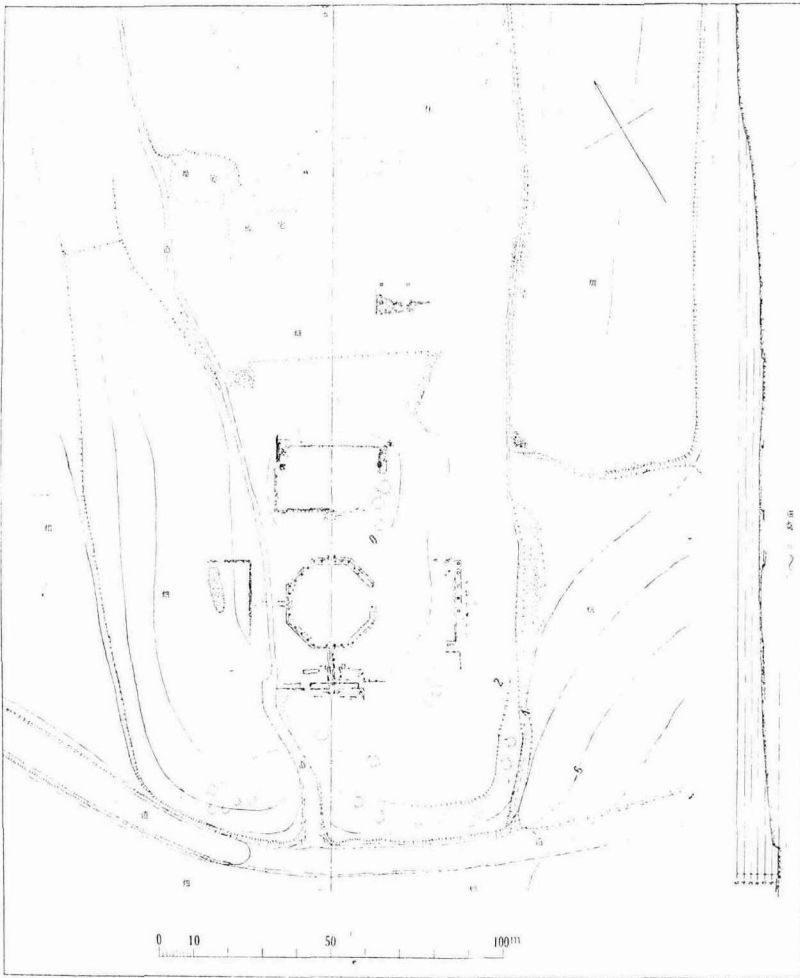


圖 7. 平壤清岩里廢寺址 主要部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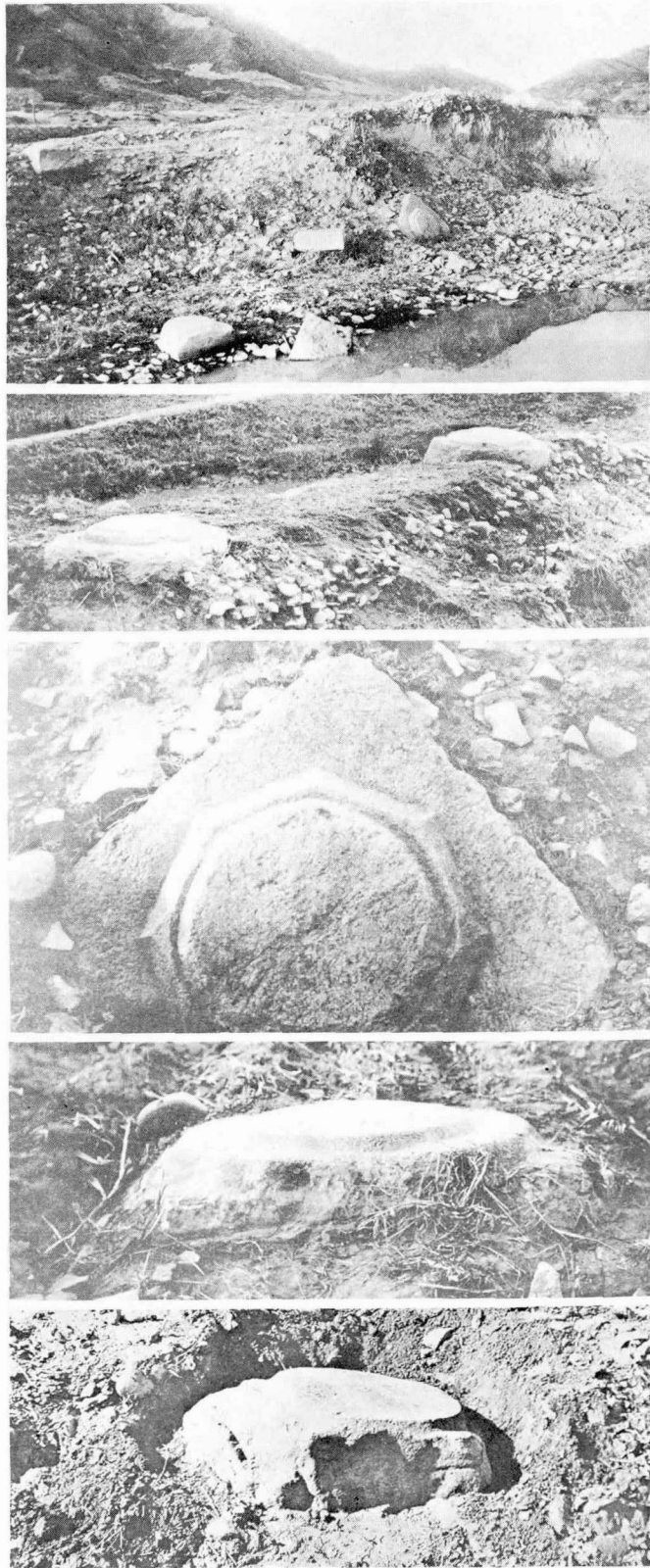


圖 8. 東坨子 遺存礎石

面中央에는 階段이 없는 것을 나타낸 것 같다. 또 基壇 上邊에 한 줄의 띠두리를 돌린 것은 基壇 甲石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雙線으로 된 垂直線은 基壇과 階段의 區劃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또는 基壇의 隅柱를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基壇 下邊에 아무런 線이 없는 것은 地臺石의 存在를 否認하는 證據가 될 수도 있겠다. (圖版 4 參照)

이상과 같은 資料를 通해 볼 때 高句麗의 建物基壇 外裝은 石材 治石의 精巧함과 粗朴함은 고사하고 地臺石、面石 그리고 甲石으로 構成된 是 基壇이 아니고 地臺石과 面石、甲石의 區別이 없는 板石을 並列하여 만든 基壇이 많았던 것 같고 때로는 面石 위에 甲石만을 올린 것도 있었던 것 같다.

基壇 上面에는 宮城에 關連있는 權威建築等에는 잘 治石된 板石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이 時代의 基壇에 관한 資料가 充分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 高句麗의 建物 基壇의 全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基壇의 形態는 그 위에 세워지는 建物の 平面 모습에 따라 長方形、八角形 또는 方形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安鶴宮의 主要 宮殿建物の 基壇은 宮殿 左右에 붙는 翼廊 등으로 平面이 亞形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⑩ 이들 基壇의 대부분은 단순한 單層基壇으로 보이나 淸岩里廢寺의 塔、中金堂 및 東、西金堂의 基壇은 二重基壇인 듯하다. 調查報告書에는 이에 관한 內容을 찾을 수 없으나 八角塔址 基壇 周邊에 配置된 小



圖 9. 千秋塚附近 遺存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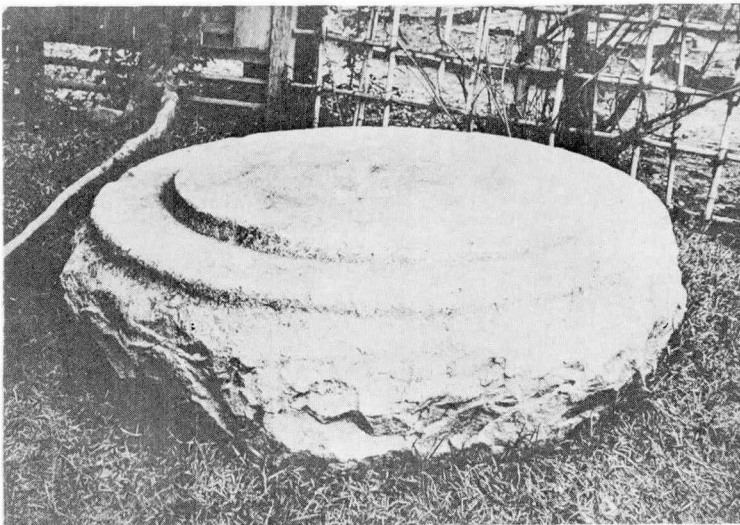


圖 10. 平壤中城 正陽門址附近出土 礎石

「東」(小柱)의 臺石이라 報告된 小礎石은 分明히 遮陽을 받치는 礎石이며 이 안쪽에 출 이어 나타난 雜石이 上層基壇의 外裝石의 積心으로 보이고 그 안쪽은 한단 높아진 岩盤을 깎아낸 基壇構築土이다. 따라서 이 基壇에는 八角의 巨大 木塔이 上層基壇 上面에 섰고 그 建物の 初層 屋蓋 밑에서 다시 기와 또는 板子지붕으로 된 遮陽이 나와 그 遮陽 끝 部分을 支撐하는 기둥의 礎石이 下層基壇 上面에 配置된 것이다. 이 下層基壇은 寫眞資料로 보면 매우 낮은 것 같다. 이러한 狀況은 中金堂을 비롯하여 東, 西金堂에서도 같았다. (圖版 5, 6, 7 參照)

(三) 礎石: 高句麗의 木造建築에 使用되었던 礎石은 遺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廣大한 넓이를 갖는 安鶴宮址에서도 遺存치 않았고 ① 清岩里廢寺에서도 塔址인 八角基壇 上面에 礎石이 남아있지 않았고 下層基壇 上面에 놓인 遮陽의 礎石만이 남아 있었다. 高句麗의 礎石으로 알려진 것은 前述한 元五里廢寺의 礎石과 清岩里廢寺의 遮陽礎石 外에는 中國 輯安의 東始子遺蹟과 千秋塚附近의 遺蹟 및 平壤 中城의 正陽門址, 浮碧樓 및 清岩里土城內에 散在하는 礎石뿐이다. 이들 礎石 가운데 清岩里廢寺의 것은 遮陽 礎石이므로 一般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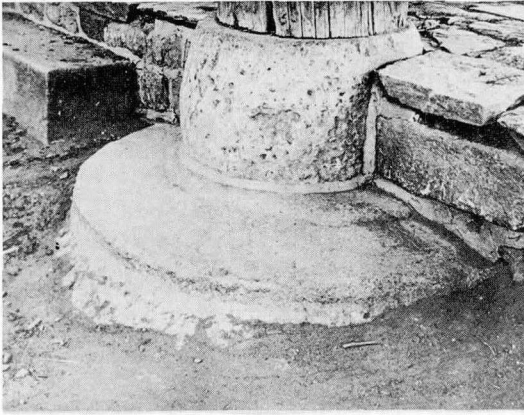


圖 11. 平壤淨碧樓 高句麗礎石



圖 12-1. 清岩里土城內塔峴民家傍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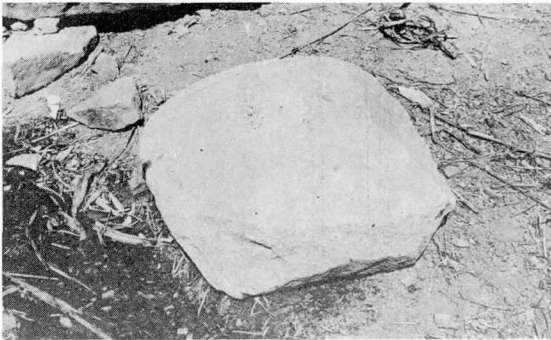


圖 12-2. 清岩里土城內東門外礎石



圖 12-3. 清岩里土城內表村民家間礎石

木造建築의 礎石과 同一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밖의 礎石의 대부분은 木造建築의 기둥을 받치는 礎石으로 보이며 그 樣相은 매우 多樣하다. (圖版 8、9、10、11、12 參照)

元五里廢寺의 礎石은 자세한 圖面이나 寫眞이 없으나 柱座 없는 上面을 平坦하게 治石한 가장 素朴한 礎石인 것 같다. 그 平面은 正方形과 圓形의 것이 있다. 東垣

子遺跡의 礎石은 한 礎石을 除外한 모든 礎石은 正方形의 臺石 上面에 圓形의 礎石 輪廓을 만들고 그 中央에 한 단 높게 圓形柱座를 刻出하였다. 한 단 높은 柱座輪廓은 傾斜지게 直線的으로 處理하였다. 다른 한 礎石은 역시 거의 같은 크기의 正方形이며 上面을 比較的 嵩게 治石한 中央에 한 단 높게 八角의 稜線이 뚜렷한 段을 지어 그 안에 八角에 內接하듯이 圓形의 柱座를 만들었다. 아마 建物의 어떤 特殊한 部分에 使用된 礎石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礎石은 千秋塚附近에 있던 礎石 속에서 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단 높게 八角의 柱座를 刻出하고 그 中心에 楮구멍을 뚫었다. 東垣子의 八角礎石은 그 위에 圓柱를 세운 것이 確實하며 千秋塚의 것은 八角柱를 세운 礎石인 듯하다. 中央에 楮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혹 八角石柱를 세운 礎石인지도 모르겠다.

平壤 中城 正陽門 附近에 있는 礎石은 王城에 使用된 礎石이기 때문인지 매우 精巧롭게 治石된 礎石이다. 圓形臺石 上面에 圓形으로 礎石

輪廓을 刻出하고 그 안에 東始子의 것과 같은 모습의 圓形柱座를 刻出하였다. 形態로 보아 東始子礎石과 같은 類에 속하나 臺石을 礎石 輪廓과 잘 맞추어 圓形으로 治石한 精巧度가 뚜렷이 다르다. 浮碧樓 礎石은 正陽門 附近의 礎石과 거의 같으나 한 단 높은 柱座輪廓이 曲面물딩 있는 것이 다르다. 肅時期가 내려오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淸岩里土城內에 遺存하는 礎石들은 거의가 圓形의 礎石 輪廓을 曲面으로 刻出하여 柱座가 없는 形式이다.

以上과 같은 礎石들을 보면 거의가 圓柱 밑을 바친 礎石들이며 元五里廢寺의 柱座 없는 方形礎石에도 圓柱를 세운 것으로 믿어진다.

淸岩里廢寺의 遮陽 礎石은 거의가 正方形 또는 長方形의 礎石이며 八角의 塔 基壇 隅角部에 配置한 礎石만은 五角形이었다. 이들 礎石에는 上面 中央에 楯구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들 礎石 위에 세워진 遮陽기둥은 四角 또는 五角의 기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圖版 6 參照)

礎石을 基壇 위에 安置하는 方法은 그다지 자세히 밝혀진 바 없다. 安鶴宮의 南宮 第一宮殿에서는 礎石은 모두 없�지고 礎石 밑에 놓인 積心만 남아 있었다. 이 積心은 커다란 自然石을 進흙에 섞어서 서너 돌 1~2m를 쌓았다. ⑫ 東始子遺蹟의 상당한 規模의 住宅址에서는 한 基壇 위에 東, 西에 거의 같은 規模의 방을 配置하고 가운데에 좁은 通路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 東쪽 房 基礎는 주먹만 큼씩한 넛돌을 幅一·五~二m로 壁體를 따라 둘러치고 그 사이 사이에 자리를 고루고 礎石을 配置하였고 서쪽 房에서는 積心 위에 礎石을 놓는 構造였다. ⑬ 이러한 內容으로 보아 高句麗에서의 礎石 安置法은 建物の 壁面에 따라 넓고 길게 넛돌을 깔고 그 위에 積心을 놓고 礎石을 安置하는 方法과 基壇 內部 礎石 자리 下部에서 圓形으로 몇 겹의 敷石을 놓고 그 上面에 積心을 놓아 礎石을 安置하는 方法과 극히 一般의 積心만을 礎石 밑에 놓는 方法이 있었던 것 같다.

(四) 基壇周邊裝置.. 基壇 周邊 裝置를 알 수 있는 資料는 淸岩里廢寺

의 여러 建物基壇 周邊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元五里廢寺의 建物基壇 周邊에서는 아무런 施設을 發見하지 못했다.

淸岩里廢寺의 八角塔 基壇에서는 「積心外周에는 小柱를 세운 것으로 推察되는 臺石같은 것을 圖面에 보는 것과 같은 配置로 남아있고 그 바깥에 다시 割石의 面을 고루어 配置하고 이에 接하며 지붕에서 떨어지는 넛돌을 받게 한 施設로 보이는 幅〇·三m의 넛돌敷石을 둘렀다. 또 南面 및 西面에서는 넛돌敷石의 中央에 基壇으로 통하는 階段遺構가 있어 거기에서 넛돌敷石의 步道가 南으로는 門址로 西쪽은 西殿址 中心에 連結됨을 나타내었다. 벌써 거의 破壞되었으나 東, 北의 二面에서도 이와 같은 階段 및 步道가 있어 東은 東殿址에 北은 中央大殿址에 連結된 痕跡을 남기고 있다」^⑭라고 했고 金堂址인 中央大殿址 周邊에도 같은 넛돌敷石이 있음이 報告되었고 西金堂인 西殿址에서도 그것이 確認되었다. ⑮ (圖版 5, 6 參照)

이러한 資料로 보아 基壇 周邊에는 落水로 地表 土壤 流失을 防止하기 위한 落水溝의 用途를 갖는 敷石帶를 돌리고 또 各建物間을 連結하는 步道가 設置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處理를 하지 않고 바로 흙바닥으로 處理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나, 軸部

(一) 기둥.. 高句麗의 木造建築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間接的 資料인 壁畫古墳에서 볼 수 있는 그림과 石材로 模刻한 木造建築部材를 援用하여 考察할 수밖에 없다.

石材로 模刻한 기둥 가운데 가장 일찍 알려졌고 有名한 것은 雙楹塚의 前室과 主室 사이 通路 左右에 선 雙柱이며 그 石柱가 雄壯華麗하며 雙柱에 의해 古墳名이 雙楹塚으로 命名되었다. 石柱는 上狹下寬의 八角柱로 礎石柱座를 나타내는 八角의 曲面으로 隆起된 臺石 위에 섰다. 기둥머리에는 한 단의 굽이 있어 갑자기 가늘어지면서 그 위에 平面八角의 柱斗를 올렸다. 柱斗는 두툽한 굽받침을 가졌고 柱斗굽은 一般의 內反된 굽이 아니고 外反된 볼록한 曲을 가졌고, 柱斗의 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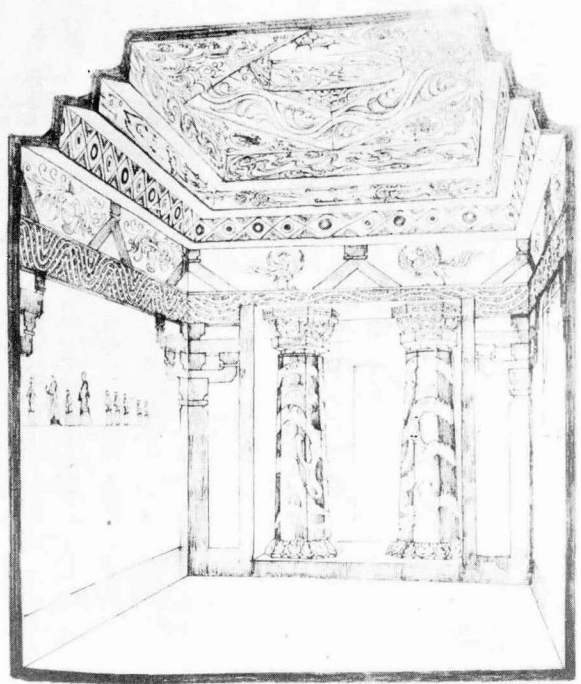


圖 13. 雙楹塚 後室 透視圖(平南龍岡郡池雲面)

매우 낮다.石柱全體가丹青되었고 柱座 側面에는伏蓮, 柱身에는蟠龍, 勾반침 側面에는流雲紋, 外反된 굽에는仰蓮을 그렸고 柱斗 側面에는環紋과菱形紋의幾何學的紋樣을 그렸다.(圖版 13 參照)

台城里一號墳은 前室과 主室 中央에礎石 없이 바다에 바로 선 좁배 홀림이 있는八角石柱가 있다. 기둥머리에는 높은 좁 內反한 曲面的 굽을 갖는比較的 큰 四角柱斗를 올렸다. 柱斗에는勾반침이 없다.

遼東城塚에는 東西로 길게 놓인 前室의 東端部에 귀를 크게 작은 四角石柱가 있다.礎石이 없고 기둥머리에는 낮은覆鉢形의 勾반침 위에 굽이 매우 肥大해지고 斗가 아주 작은 異形柱斗를 올렸다. 기둥 몸은八角으로 보이는 하나 斷面長方形의 四角柱 귀를 크게 마넨 形態로 기둥 各邊의 크기가 一定치 않다.

八清里壁畫墳은 前室과 主室 사이 通路 中央에石柱가 있다. 이石柱

는 작게 귀작음한 四角柱로서 平面 正方形의 키가 큰 台狀의礎石 위에 있다. 기둥머리에는 마치 柱斗 勾반침같은 板石을 끼고 그 위에 柱斗 굽같이 좁 上寬한 部材가 놓여 그 위에 楣石이 닿는다. 따라서 이 기둥 위 架構物 역시 柱斗라 하기에 좁 어색한 것이다.

麻線溝一號墳에는 主室 中央에 圓柱를 세워 上部 穹窿天井 中央을 받치고 있다.礎石이나 柱斗 없이 밋밋한 돌기둥으로 表面에 灰칠하고 丹青하지 않았다.

安岳三號墳은 高句麗古墳 가운데 石柱가 가장 많은 古墳이다. 古墳 羨道 入口 左右에 柱斗를 올린 四角柱가 있고 前室 入口 左右에는 二斗를 갖는 斗栱을 올린 四角柱가 있다. 또 前室과 主室 사이에는 下部에 長大石을 깔고 세운 세개의 四角柱斗를 갖는 큰 八角柱가 있고, 前室과 左右 側室에는 前室 入口와 꼭 같은 二斗 斗栱을 올린 四角柱가 있다. 그 밖에도 主室과 그 뒤 廻廊 境界에는 下部에 낮은 石壁을 두고 그 위에 세개의 四角柱斗를 갖는 八角柱가 있고 그 左右 間壁에 붙어서 역시 二斗 斗栱을 갖는 四角柱가 있다.

이들 石柱 가운데 八角柱는 모두 斷面이 整然한 八角을 이루지 못하고 石材를 四角으로 만들어 그 네 귀를 크게 작아 八角으로 한 것으로 各面의 幅은 一定치 않다. 柱斗는 主室 앞에 것은 굽 바닥 크기가 기둥 幅과 거의 같은 매우 큰 것이다. 主室 뒷쪽의 것은 기둥머리를 등굴게 짜았고 柱斗 上部의 크기가 기둥 幅과 같다. 이들 八角柱의 柱斗 側面과 굽에는 鬼面 또는 蓮花紋을 그렸고 기둥 몸에는 灰칠 하였을 뿐으로 紋樣은 없다.

四角柱는 羨室 入口의 것은 기둥 네 귀를 좀 크게 귀작음했고 柱斗 굽은 큰 曲面을 가졌다. 그 밖의 四角柱도 形態는 羨室 入口의 것과 비슷하나 柱斗 위에 斗栱을 가진 點이 다르다. 이들 石柱 가운데 後室과 東쪽 廻廊 사이 間壁 兩端의 石柱 柱斗에는 鬼面紋이 있었고 다른 石柱의 丹青 如否는 不分明하다.(圖版 14 參照)

高句麗壁畫古墳에는 墓室 隅部 또는 壁面 中央에 柱形圖를 그린 것이

比較的 많다. 그 가운데 墓室 隅部に 그린 柱形의 大部分은 柱形을 寫實的으로 그려 기둥 위에 한 겹 또는 두 겹의 斗栱을 올린 그림이다. 열마간의 古墳에서는 기둥을 抽象的으로 表現하며 斗栱을 略化한 듯한 逆階段式으로 그리기도 했다. 이들 柱形圖 가운데 기둥을 逆階段式으로 그린 三室塚, 散蓮花塚, 環文塚, 台城里二號墳, 伏獅里壁畫墳 및 藥水里壁畫墳 등의 기둥, 斗栱을 그려도 그 全體의 輪廓線만을 그린 舞踊塚, 角抵塚와 기둥, 柱斗, 欂栌, 소로등을 각각 區分하여 그린 龍神塚 등의 기둥은 기둥머리를 둥글게 짚지 않고 直線으로 斗栱部 혹은 柱斗에 닿고 있다. 기둥과 斗栱을 比較的 寫實的으로 그린 龜甲塚, 安岳二號墳, 龍岡大塚, 雙楹塚 및 安岳一號墳에서는 기둥머리를 둥글게 짚은 모습의 曲線으로 表現되었다. 德興里壁畫墳과 八清里壁畫墳에서는 柱形圖를 墓室 隅部 또는 隅部 가까이 寫實的으로 그렸으나 기둥 위에는 柱料만을 그렸고 斗栱은 없다. (圖版 15, 16 參照)

이러한 石柱나 柱形圖로 보아 당시의 기둥은 比較的 寫實的으로 表現된 柱形圖와 雙楹塚의 石柱 頭部의 削임 處理 등으로 이루어 기둥머리를 둥글게 짚은 것이 많았고 따라서 기둥은 圓柱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安岳三號墳의 石柱類와 台城里一號墳의 石柱, 龍神塚의 柱形圖 등으로 보아 기둥머리를 둥글게 짚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四角柱였고 때로는 圓柱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 柱形圖나 대부분의 石柱들은 약간 上狹下寬의 直線의인 기둥으로 表現되어 기둥에 배흘림이 있는지의 如否를 判斷하기 어려우나 台城里一號墳의 石柱와 八清里壁畫墳의 柱形圖는 分明히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기둥에는 배흘림이 있는 기둥과 민흘림 기둥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기둥 表面에는 雙楹塚 石柱와 龍岡大墓, 安岳二號墳, 環文塚, 德興里壁畫墳 및 八清里壁畫墳의 柱形圖가 丹青을 나타내는 蟠龍紋 또는 心葉紋, 唐草紋 등의 紋樣을 그렸다. 이것으로 보아 權威的인 큰 建物이나 邸宅建物の 기둥에는 기둥 表面에 紋樣을 그린 丹青이 있었던 것이 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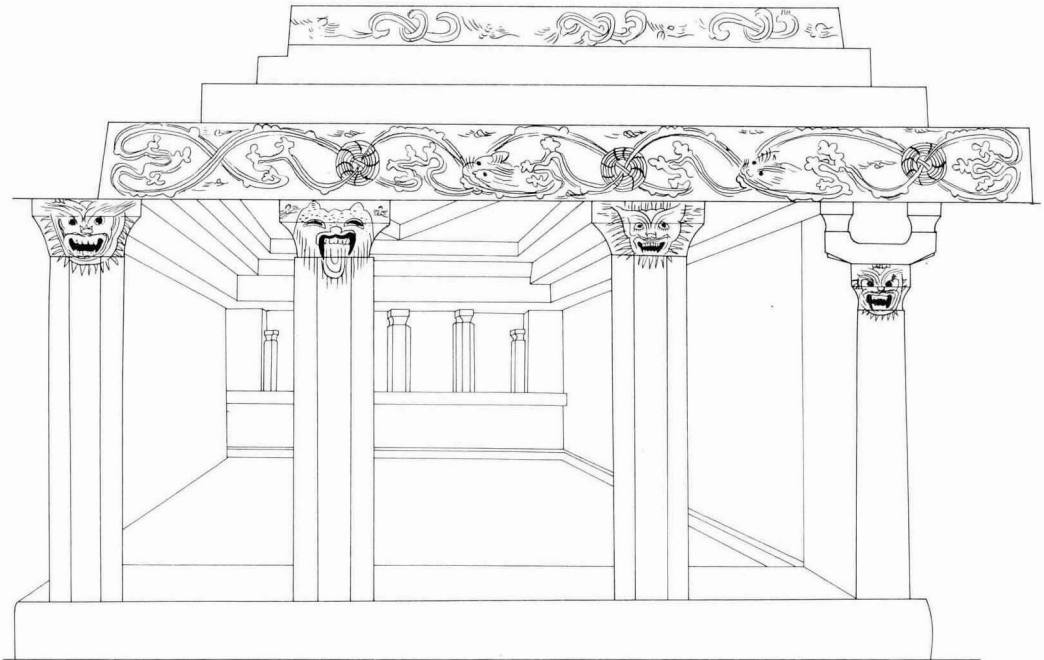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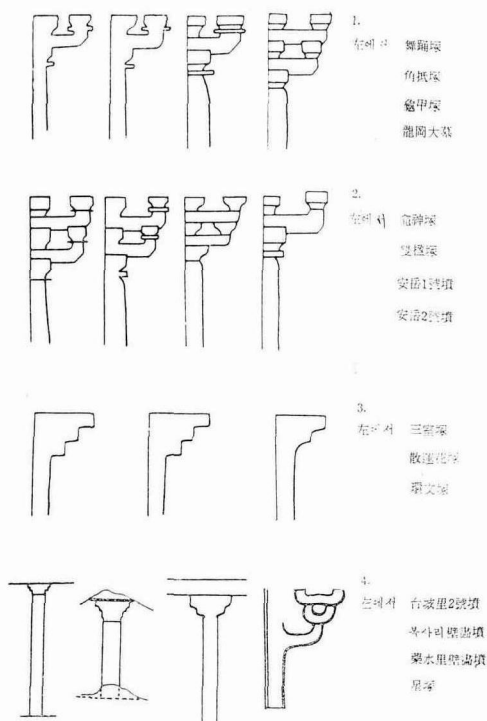


圖 14. 安岳3號墳 前室柱 및 壁畫

明하다. 그러나 모든 建物 기둥이 丹青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二) 斗拱: 斗拱은 安岳三號墳 間壁 兩端의 四角柱 머리 에 올린 二斗 斗拱 以外는 모두 三斗 斗拱을 가졌다. 墓室 隅部에 寫實的으로 그려진 柱形圖가 모두 三斗 斗拱이었다. 三斗를 갖는 斗拱은 中國에서는 六朝 時代에 나타난 것으로 北魏에서 가장 일찍 나타난다. ⑯ 따라서 이들 三斗 斗拱은 北魏의 影響으로 高句麗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高句麗 壁畫古墳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믿어지고 그 築造實年代가 三五七年임이 밝혀진 安岳三號墳에서는 三斗 斗拱이 出視하기 以前의 二斗 斗拱이었다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적어도 安岳三號墳에 서는 北魏樣式을 찾지 못하고 高句麗의 初期的인 建築 모습의 一端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安岳三號墳의 斗拱과 恰似한 것은 中國山 東省 沂南의 後漢代의 畫象石墓에서 찾을 수 있다. ⑰

三斗 斗拱을 갖는 柱形圖 속에서 한점의 斗拱을 갖는 것으로는 舞踊 塚、角抵塚、龜甲塚、安岳二號墳이 있고 두점의 斗拱을 갖는 것에 龕神 塚、雙楹塚、龍岡大墓、安岳一號墳이 있다. 이들 柱形圖 가운데 柱斗와



소로에 굽받침이 전혀 없는 것은 安岳一號墳을 除外하고는 龍岡大墓뿐 이며 柱斗에만 굽받침이 있는 것은 安岳二號墳이다. 다른 古墳들은 모 두 柱斗와 첨차 양 끝에 놓인 소로에 굽받침이 있고 첨차 中央에 놓인 소로에는 굽받침이 없다. 安岳一號墳은 柱斗와 소로가 唯一하게 曲線의 으로 즉 柱斗나 소로의 굽과 斗部分이 確然하게 區分되지 않게 S字形 으로 處理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굽받침이 없다.

이들 柱形의 첨차 모습은 安岳一號墳과 角抵塚의 것이 類似하여 첨차 下端部를 圓弧形으로 處理하였고 다른 모든 柱形의 첨차는 下端部를 傾 斜지게 直線의 으로 處理하였다. 또 첨차 兩端의 소로를 올리는 部分을 첨차 몸보다 높게 處理하지 않고 첨차 上面이 一直線으로 된 것은 安岳 一號墳과 龍岡大墓의 것이며 이들은 柱斗와 소로에 굽받침이 없는 柱形 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첨차 양 끝을 한단 높게 만들어 그 위에 소로 를 올리고 있다. 소로 굽에 굽받침이 있는 경우는 形態上 當然히 소로 가 닿는 部分이 한단 높아야 굽받침이 드러나 意匠的 效果를 낼 수 있 을 것이나, 유독 安岳二號墳에서는 소로에 굽받침이 없어 첨차 上面을



圖 16. 德興里壁畫古墳

水平으로 만들어도 意匠上 아무런 支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첨차 끝을 한단 높이고 있는 점은 注目된다.

安岳一號墳의 柱形의 柱斗와 첨차 모습의 特異한은 이미 말하였으나 星塚 主室 隅部에 그려진 柱形圖는 더욱 奇異하다. 이 柱形圖는 기둥에서 마치 나무가지처럼 첨차가 나와 그 위에 大小 二重의 U字形 첨차를 올렸고 柱斗나 소로의 表現이 없다.

柱形圖를 逆階段式으로 表現한 古墳에 分類되는 環文塚의 柱形은 그 洞內에 그려진 輪廓線과 紋樣으로 보아 기둥머리는 그 위 道里에 直接 닿고 기둥머리 앞뒤에서 草栱이 裝置되어 역시 道里를 받치고 있음이 分明하다. 이것은 高句麗木造建築에 草栱이 使用되었던 것을 나타내는 證據로서 貴重한 資料가 된다. (圖版 17 參照)

以上과 같이 高句麗 木造建築의 斗栱모습을 古墳의 柱形圖를 通해 觀察하니 역시 斗栱의 形態가 매우 多樣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圖 17. 環文塚(玄室西北隅壁畫細部)

斗栱은 柱斗와 소로에 楯받침이 있고 첨차 끝은 強直하게 直線의으로 傾斜지게 잘랐다. 그러나 柱斗에만 楯받침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 첨차 끝을 부드럽게 弧形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簡略하게 草栱으로 上部 荷重을 받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安岳一號墳이나 星塚의 柱形圖간 이 曲線의으로 表現된 斗栱은 어쩌면 傳統的으로 曲線的 斗栱을 갖고 있던 中國 南朝의 影響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⑱ 또 한결의 斗栱과 두결의 斗栱이 있는 것으로 보아 二出目の 建物의 存在를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天王子地神塚의 主室 屋蓋에 壁 上部에서 突出한 石材로 模刻한 첨차를 보아도 充分히 可能한 일이다.

다. 屋 蓋 部

(一) 屋蓋架構·屋蓋架構를 比較的 잘 알 수 있는 資料에는 安岳三號墳의 東側室 東壁 上部에 그려진 厨房圖와 雙楹塚 玄室 後壁의 帳幕建物 속에 그려진 殿閣圖가 있으며 天王子地神塚 前室 上部 架構 등이 있다.

雙楹塚의 殿閣圖는 맛배집으로 용마루 양 끝에는 望瓦 비슷한 裝飾을 올린 기와지붕이다. 建物의 기둥은 가늘고 기둥머리에는 두점으로 된 斗栱으로 보이는 架構를 올리고 있다. 建物 側面은 기둥머리에 昌枋을 걸고 建物 正面 右側에는 기둥 斗栱 附近에 昌枋을 걸고 있다. 기둥 위 柱間에는 側面에 하나 正面에 다섯개의 人字形臺工을 配置하고 正面의 人字形臺工 사이에는 童子柱를 세워 다 같이 上部의 道里를 받쳤다. 側面의 人字形 臺工머리에는 小斗를 올리고 그것이 楹보를 받치며 그 위에 다시 같은 모양의 臺工을 올려 宗道里 밑을 받는다. 따라서 楹보 위의 臺工은 臺工이라기 보다 合閣部의 小楹合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建物의 左側面에는 앞뒤 기둥 楹間に 다시 작은 처마를 내려 그 밑에 門扉를 架構하였다. (圖版 18 參照)

安岳三號墳의 厨房圖는 建物의 正側面圖로서 建物을 前方 45度 方向에서 바라본 그림이다. 따라서 建物 側面이 잘 나타나 그 架構法을 알 수 있다. 建物은 낮은 基壇 위에 섰으며 용마루 끝은 鷓尾로 裝飾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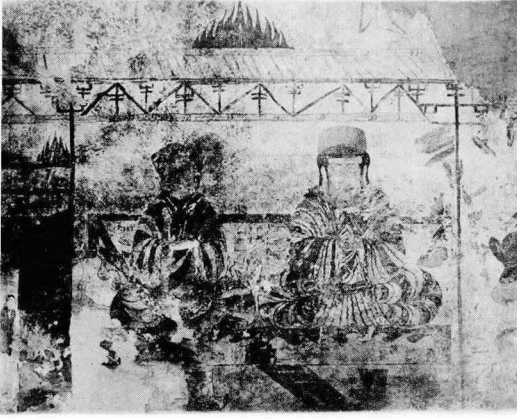


圖 18. 雙楹塚 後室北壁人物

以上과 같은 屋蓋架構 內容은 매우 簡單한 建物の 屋蓋架構를 나타내는 것이다. 實地 建物에서는 建物 앞뒤에 가로 걸쳐진 대들보 위에 直線材로 된 소슬合掌을 올려

넓게 펼친 人字形臺工狀의 소슬合掌으로도 볼 수 있는 石造部材를 올렸다. 소슬合掌 위에는 굽받침 없는 小斗를 올리고 小斗 上面에는 짧고 엷은 短長舌를 끼고 좁은 天井을 支撐하고 있다. (圖版 20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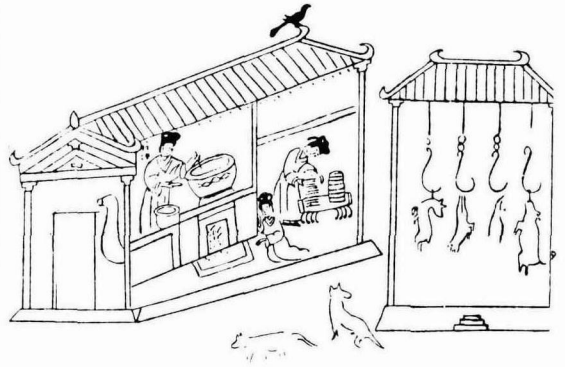


圖 19. 安岳三號墳 廚房圖

와 지붕의 맞배집이다. 기둥은 가늘고 기둥머리에 柱斗를 올렸다. 建物側面은 기둥 위의 柱斗가 보를 받치고 보 위에는 받을 넓게 펼친 人字形臺工같이 그려진 소슬合掌을 올려 소슬合掌 머리에도 小斗를 올리고 이 小斗가 宗道里를 받쳤다. (圖版 19 參照)

天王地神塚 前室에는 前室前、後壁 上部에 돌로 짚은 斷面長方形의 굽직한 보를 건너고 그 위에 역시 받을

려 종도리를 받치는 形式이다. 이와 비슷한 架構로 된 古建物에는 日本 京都의 藥師寺 本殿 建物이 있다. (圖版 21 參照) 그러나 高句麗의 巨大한 木造建物の 架構는 이렇게 簡單한 架構로만 構成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 二重梁, 그리고 樑梁 등의 架構法을 混用한 더욱 復雜한 架構였을 것이다.

雙楹塚 殿閣圖의 建物前面의 기둥 위 人字形臺工과 같은 모습의 臺工은 柱形圖가 있는 壁畫古墳의 몇몇 古墳에서도 壁畫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臺工은 柱形斗의 斗棋 위에 그려져 壁面 上部를 지나는 道理를 나타내는 그림 위에 그려져 다시 臺工 위에 道里와 같은 橫材를 그렸다. 이 人字形臺工은 모두가 두 발이 直線의이며 이 形態 역시 北魏의 臺工에서 볼 수 있다. 臺工의 두 발이 曲을 갖게 되는 것은 北齊에서 시작되며 따라서 高句麗의 木造建築은 古墳에 그려진 人字形臺工으로만 본다면 北齊 以後의 影響은 나타나지 않았다. ①⁹

(二) 屋蓋形態·高句麗의 木造建築의 지붕 形態 역시 實遺構가 없고 다만 古墳壁畫에 나타난 建物圖 및 建物址의 形態 등으로 推測할 수 밖에 없다. 古墳壁畫에 나타난 建物圖에서는 모두가 우진각지붕 아니면 맞배지붕 뿐으로 팔각지붕은 전혀 볼 수 없다. ②⁰ 이 事實은 팔각지붕은 그 發生이 高溫 多濕한 南方地方에 있는 것이며 우진각지붕은 寒冷한 北方地方에서 시작된 것으로 ②¹ 高句麗는 始終 主로 中國 北方과의 直接의 交流를 가졌기 때문에 南方系의 팔각지붕이 導入되지 않았던 結果로 나타난 現象인 듯하다. 맞배지붕은 建物 지붕으로서 가장 基本的인 簡單한 構造로 南方이나 北方의 區別 없이 使用된 것이다. 다만 南方에서는 맞배지붕의 合閣部를 開放하여 通風에 便하게 했을 것이고 北方에서는 合閣部를 密閉하여 外氣의 浸入을 막았을 것이다. 따라서 高句麗의 맞배지붕 역시 側面은 密閉되고 있었다. 이 밖에 淸岩里廢寺의 八角木塔址 등으로 보아 팔모지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當然히 네모지붕도 存在했을 것이다.

(三) 기와·高句麗에서는 建國 當初 부터 新技法에 의한 建築에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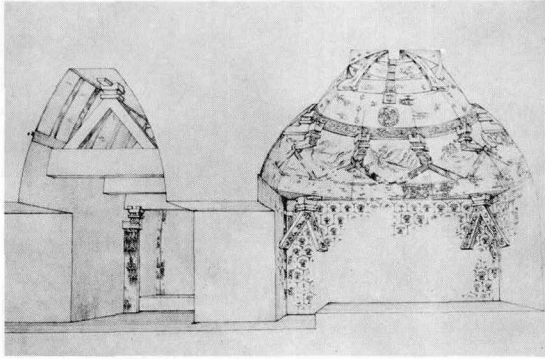


圖 20. 天王地神塚 前室及玄室透視圖



圖 21. 新藥師寺 本堂內部

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기와는 솟기와 암기와 및 솟막새가 있었고 그 밖에 鴟尾, 鬼面瓦 등의 裝飾기와도 있었던 것 같다. 高句麗기의特徵은 우선 그 製造法에서 酸化焰 燒成으로 因해 赤褐色 또는 黃褐色의 기와가 대부분이란 점이 還元焰으로 燒成하여 黑色 또는 灰黑色의 百濟나 新羅의 기와와 다르고 솟막새 紋樣이 漢式기와 紋樣의 影響으로 百濟나 新羅의 紋樣과 다른 것이다.

솟막새 紋樣의 大宗은 蓮花紋系이기는 하나 그 構成과 形態에 있어 百濟나 新羅와 크게 다르다. 圓形의 막새 中央에 頂點에 작은 꼭지가 달린 半球形의 큼직한 珠紋을 놓고 그 周圍에 一條 또는 二條의 環紋을 둘러 거기서 方射狀으로 二條 또는 三條의 線을 내어 막새 面을 六 또는 八個의 扇形으로 分割하여 그 各區劃 안에 杏實形의 立體的인 蓮瓣을 配置한 것이 基本紋樣이다. 막새의 周緣은 넓고 높게 만든다. 이들 기와는 國內城 遺址 附近과 平壤 附近에서 出土되며 比較的 오래된 形

態이다. 이 紋樣은 時期가 내려오면서 二~三條의 放射狀으로 막새面을 區劃한 線이 變化하여 杏實形 蓮瓣 사이에 가는 突線의 蓮瓣이 되기도 하고 또 忍冬紋 등으로도 變하게 된다. 솟막새 紋樣에는 이 밖에 獸面紋과 忍冬紋 및 火焰紋 같이 보이는 廻轉忍冬紋 등이 있다. 獸面紋은 高句麗 初期부터 末期까지 고루 使用되었던 것 같아 各地에서 出土된다. 忍冬紋은 平壤을 中心으로 出土되고 廻轉忍冬紋은 時期가 멀어지는 것 같다. (圖版 22 參照)

特異한 막새기와로는 漢瓦의 影響을 直接的으로 나타내는 半圓形막새가 있다. 막새 紋樣은 杏實形의 蓮瓣 左右에 渦紋 또는 唐草紋을 配置한 것이나 時期는 내려오는 것 같다.

高句麗에서는 암막새기와는 거의 發見되지 않는다. 다만 安鶴宮址附近에서 灰色 기와로 紋樣은 杏實形 蓮瓣 左右에 唐草紋이나 渦紋을 配置한 것이 報告된 바 있다. ② 이 암막새가 高句麗에서 使用된 것인지 高句麗 滅亡後에 高句麗系 紋樣으로 補修用 기와로 製作 使用된 것인지는 尙장 판단하기 어렵다. 筆者의 見解로는 灰色瓦란 點, 그리고 他地域에서의 出土 例가 없다는 點으로 미루어 高句麗에서는 암막새가 發生되지 않았고 安鶴宮址 出土 암막새는 後代의 것으로 생각함이 옳을 것으로 본다.

라, 木造建築의 復元

高句麗의 木造建築에 관한 上述한 資料를 綜合하면 어느 정도 的 建物の 復元이 可能하다. 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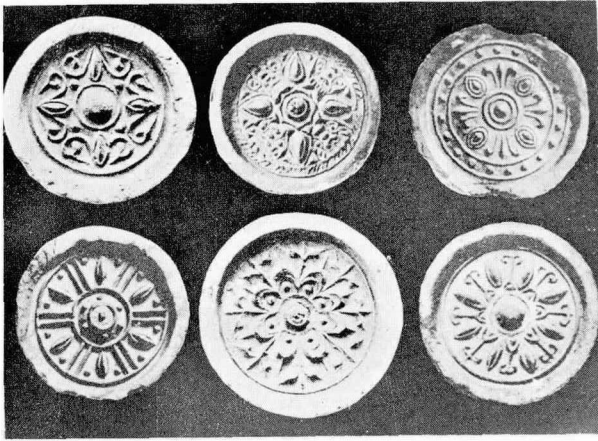


圖 22. 高句麗瓦當

시작되는 三斗式的 斗栱이었다. 斗栱의 柱斗나 소로에는 굽받침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간혹 없는 것도 있었다. 침차는

기둥머리에는 柱斗를 올리고 그 위에 한 겹 또는 두 겹의 斗栱을 올린다. 簡素한 建物에서는 柱斗만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둥머리에 草栱을 끼워 上部架構材를 받치기도 했다. 斗栱은 극히 初期에는 二斗로 된 漢式斗栱도 使用되었으나, 대부분은 北魏에서

高句麗의 木造建築은 대부분이 單層建築이었으나 寺刹의 木塔이나 宮殿 建物의 어떤 것은 重層 또는 多層 建物도 있었다. 住宅建築의 殿閣 역시 單層 建物이 主流를 이루었고, 例外的으로 通溝十二號墳의 殿閣圖 같이 重層의 경우도 있었다. 흔히 安岳一號墳의 殿閣圖의 垣牆內 建物을 重層 建物로 主張하나²³ 그 建物은 分明히 앞위에 세워진 建物을 그린

下端部를 傾斜지게 直線的으로 끊어 낸 強直한 感覺의 것이 많았고 더러는 下端部를 弧形으로 깎은 부드러운 느낌의 것도 있었다. 또 高句麗와 中國 南朝와의 交流를 通하여 그 곳의 建築樣式인 曲線的인 斗栱을 갖는 建物도 아주 드물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建築은 北朝系의 影響으로 定着된 高句麗建築이었을 것이다. 두 겹의 斗栱의 存在와 天王子地神塚의 主室 內部에 突出한 침차 등으로 보아 建物 斗栱에 出目이 있었고 적어도 二出目の 建物이 세워진 可能性이 크다. 斗栱은 그 위의 昌枋의 人字形을 支撐하며 道里 위에 人字形台工을 올려 치마 밑 道里를 받는다. 때로는 台工과 台工 사이에 童子柱를 配置하는 경우도 있다. 人字形台工은 두 받이 모두 直線材로 만들어져 中國 北齊부터 나타나는 曲線材로 된 人字形台工은 보지 못한다. 따라서 古墳 壁畫에 나타난 木造建築의 要素 만을 본다면 高句麗의 木造建築은 北齊以後隨、唐의 影響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事實은 高句麗에서는 이미 高句麗의 木造建築을 確立하여 그 후의 中國의 影響을 拒否한 것인 지도 모르겠다. 지붕은 小規模 建築에서는 맛배지붕이 주로 使用되었고 規模가 큰 建築에서는 우진각지붕이었다. 지붕에는 붉은 색의 기와를 잇고 치마 끝에는 숫막새로 裝飾되었다. 지붕 용마루 끝에는 鷓尾를 올렸고 내릿마루 끝에는 鬼面瓦를 달기도 하였다. 그러나 指配者나 貴族들의 邸宅에 있어서도 厨房이나 厩舍 등 附屬 建物에는 舞踊塚의 厨房圖 같이 지붕을 板子로 이은 너와집도 있었고 角抵塚에서 보는 것 같은 草家지붕도 있었다.

의 區別 없이 큰 板石을 세워서 並置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때로는 面石 위에 甲石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基壇은 單層 基壇이 많았으나 二重 基壇도 있었다. 二重 基壇의 경우에는 下層 基壇은 매우 낮게 만들고 基壇 위에 建物의 遮陽을 받치는 기둥의 礎石을 配置하였다. 基壇에는 그 前面 또는 側面에 石造階段을 設置하였다. 建物의 기둥은 圓柱가 대부분이며 壁端에 붙은 建物 內部에 세워지는 기둥의 경우에는 四角柱가 使用되기도 했다. 礎石의 形態로 보아 八角柱도 있었던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使用된 것이며 一般의 인 것은 아닌 것 같다. 雙楹塚의 八角石柱 역시 그 몸체에 丹青된 蟠龍紋으로 보아 圓柱를 象徵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배흘림이 있는 것도 드물게 使用되었던 것 같으나 대부분은 민흘림의 기둥인 듯하다. 기둥머리는 둥글게 모를 깎은 것이 많았다.

기둥머리에는 柱斗를 올리고 그 위에 한 겹 또는 두 겹의 斗栱을 올린다. 簡素한 建物에서는 柱斗만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둥머리에 草栱을 끼워 上部架構材를 받치기도 했다. 斗栱은 극히 初期에는 二斗로 된 漢式斗栱도 使用되었으나, 대부분은 北魏에서 高句麗의 木造建築은 確立하여 그 후의 中國의 影響을 拒否한 것인 지도 모르겠다. 지붕은 小規模 建築에서는 맛배지붕이 주로 使用되었고 規模가 큰 建築에서는 우진각지붕이었다. 지붕에는 붉은 색의 기와를 잇고 치마 끝에는 숫막새로 裝飾되었다. 지붕 용마루 끝에는 鷓尾를 올렸고 내릿마루 끝에는 鬼面瓦를 달기도 하였다. 그러나 指配者나 貴族들의 邸宅에 있어서도 厨房이나 厩舍 등 附屬 建物에는 舞踊塚의 厨房圖 같이 지붕을 板子로 이은 너와집도 있었고 角抵塚에서 보는 것 같은 草家지붕도 있었다.



圖 23. 無踊塚 主室右壁下部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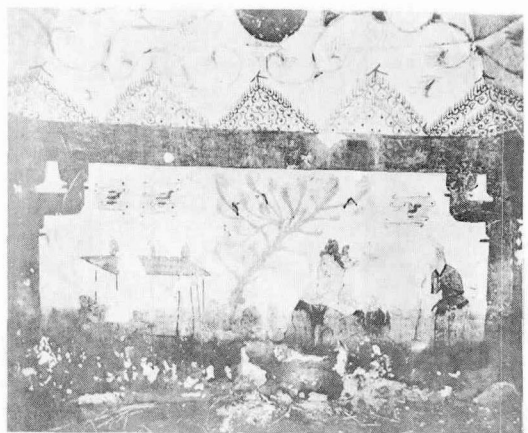


圖 24. 角抵塚 主室右壁壁畫

것인데拙劣한表現으로 마치重層建物 같이 보이는 것이다. 왜냐면所謂上層建物과下層建물이 약간비껴어져있고下層建物용마루끝에分明히鳥尾 같은裝飾이 달려있다. 重層建物の下層지붕에는그러한裝飾이設置되지 못한다. (圖 25 參照)

二、百濟建築

百濟는高句麗系의한部族이韓半島中部에割居하여建國하고四世紀中葉에는韓半島西南部로進出하였다. 百濟의風俗은高句麗와 같았고 ② 따라서 百濟는高句麗가建國當初부터 갖고 있던新建築技法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하며 그建築 모습은初期의 것은高句麗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百濟는中國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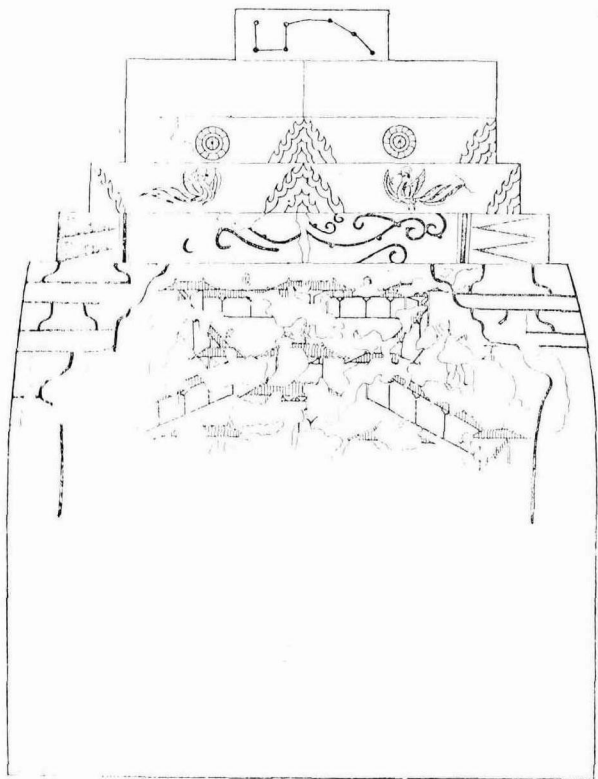


圖 25. 安岳 一號墳 壁畫 殿閣圖(北壁)

朝와의海路를 통한交流가 많아지자 그들의建築 속에南朝系建築樣式이導入되어百濟固有의建築相을나타내게 되었으리라생각된다. 百濟의建築을考察할수 있는直接的資料는公州, 扶餘, 益山地方에遺存하는百濟의建物址 특히寺址들의發掘調査에서 얻어진약간의資料뿐이며그밖에小數의石造物 또는文獻의間接的資料가 있을 뿐이다.

가. 基壇部

(一) 基壇築土: 百濟時代寺刹址에 대한發掘調査에서建物の基壇築土에 관한調査報告는一九六四年에서一九六六年에 걸쳐發掘된金剛寺址②와一九八〇년에發掘된定林寺址發掘②뿐이다. 定林寺는日政末期인一九四二年에서一九四三年에 걸쳐發掘調査된

바 있으나 그 調査報告書는 發刊되지 않았다. 一九八〇년에 實施된 發掘調査는 이 遺跡의 整備 淨化를 위한 基本資料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 正式 調査報告書는 發表되지 않았고 調査擔當者인 忠南大學校 尹武炳教授에 의한 略報告가 있다. 이 略報告에 의하면 定林寺의 金堂基壇은 二重基壇이며 上層基壇 上面과 下層基壇 上面에도 礎石이 配置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痕跡는 下層基壇에 配置된 礎石의 積心石 뿐이고 上層基壇은 이미 完全히 破壞되어 그 모습을 잃고 있었다고 한다. 金堂의 基壇 構築土는 中門基壇의 경우와 大同小異하고 敷地造成을 위한 盛土層과 基壇 構築土(黃褐色粘土層)와는 잘 區別되지 않았다고 한다. 中門의 基壇 構築土에 대해서는 「基壇土의 構築은 단순한 盛土에 의한 것으로 推測된다. 石塔과 中門이 位置한 境內 前半部는 寺刹建立時에 땅을 뜯어서 敷地를 造成하였다. 中門의 基壇構築土로 使用된 흙은 黃褐色粘土質이며 이는 敷地造成의 土壤과 同一한 것이다」²⁷⁾라고 했다. 그러나 講堂의 경우는 좀 달랐다. 즉 講堂은 高麗時代의 再建講堂과 百濟創建講堂의 基壇이 重複되었다. 이 基壇構築土에 대해서는 「講堂址 東半部에서 實施한 土層트렌치에서 觀察된 바로서는 高麗再建時約二五cm의 두께로 基壇土가 補築되었으며 여기에 使用된 흙은 瓦片을 많이 包含하고 있었다. 그 下部를 形成한 創建基壇土는 生土層을 周圍보다 한층 높게 깎아내서 만든 것인데 火災로 인하여 上面이 붉게 타고 있었다」²⁸⁾고 했다. 이 寺址 發掘에서 五層石塔 周圍 下部에서는 「石塔에 대한 基礎工事로서는 地表下 一·六m에 이르는 두께를 堅固하게 版築法²⁹⁾에 의하여 構築된 事實이 밝혀졌다. 그 範圍는 下基壇 地台石으로 부터 四面 밖으로 六二cm까지에 이르렀다」³⁰⁾고 하여 石塔 下部 下面是 版築法이 使用된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版築이 石塔의 基礎로 實施된 것인지 石塔 以前에 木塔이 있어 그 木塔 基壇에 實施된 것이 下部만 殘存하게 된 것인지 分明치 않다.

金剛寺址에서는 創建時의 金堂, 塔 및 中門의 基壇構築土가 모두 版築法으로 築造되고 있었다. 講堂을 비롯하여 廻廊, 僧房 등의 基壇은 赤

褐色粘土質 土壤을 단단히 다져 構築한 것이었다. 매우 興味로운 일 은 塔 基壇은 그 地域의 생땅인 風化된 岩盤層을 깊이 파내려가서 거기서부터 版築으로 土壤을 쌓아올려 地上 높게 쌓아 基壇土로 했으나 塔의 心礎는 風化된 岩盤을 깎아내어 그 岩盤을 바로 心礎石으로 했던 事實이다. (圖版 26 參照) 心礎石으로 代用할 수 있는 정도의 堅固한 風化岩盤을 깊이 파내어 결코 元來의 岩盤보다 더 堅固할 수는 없는 版築法으로 基壇土를 構築한 事實이 興味로운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百濟人들의 崇佛思想에 立脚하여 基壇土構築方法으로는 가장 精誠드린 版築法을 採用하기 위하여 아주 堅固한 風化岩盤까지 파내어 施工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당시의 佛敎信仰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中門 基壇 構築에서도 역시 땅을 파서 版築으로 쌓아올렸으나 基壇 前半部는 版築 바닥에 흙을 넣기 전에 破石을 한벌 깔고 그 위에 版築했다. 이것은 中門 앞을 琴江川이 흐르며 地盤이 다른 곳보다 弱한 것을 염려하여 石材 加工時에 派生된 破石을 利用하여 補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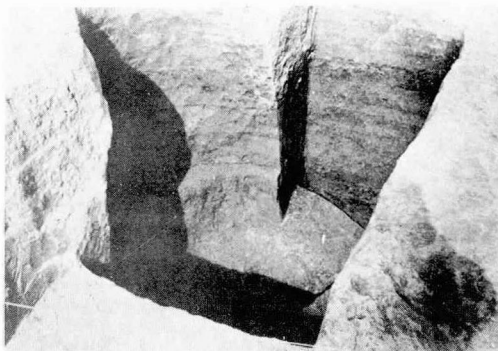


圖 26. 金剛寺塔心礎構造와 版築土狀況



圖 27. 中門(中央土層트렌치에서 본 基壇土 版築狀況)

한 것인 듯 했다. (圖版 27 參照)

以上과 같은 資料들로 볼 때 百濟의 建物 基壇築土는 高句麗 清岩里 廢寺의 塔 基壇과 같이 堅固한 風化岩盤 또는 生땅을 짜아내어 만들거나 깨끗한 土壤을 整地된 땅 위에 쌓아올리는 경우도 많았으나 전혀 새로운 方法인 版築法으로 構築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1 이 版築法은 매우 努力이 많이 所要되는 가장 精誠드린 築土法이기 때문에 한 建物群속에서도 比重이 큰 建物에만 採用되는 것으로 寺刹의 경우 塔 基壇에서 흔히 볼 수 있고 金堂 基壇에서도 採用되기도 하나 中門 基壇에까지 確認된 것은 매우 稀貴한 일이다.

(二) 基壇外裝과 形態·基壇 外裝狀態를 알 수 있는 資料에는 日政時 調査된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報告³²⁾가 있고 前述한 金剛寺址 및 現在 發掘調査가 進行中인 益山彌勒寺址의 建物址들이 있다.

軍守里廢寺의 二次 調査報告에 의하면 「中央基壇(金堂基壇址)·地形實測結果에 따라 地勢가 가장 隆起한 小松林地 西便에 우선 南北의 트렌치를 넣었으나 多幸히 方形礎石을 發見하고 계속 東西로 뻗는 암기와 並列遺構도 檢出했다. 이에 의하여 두 遺構를 基準 삼아 發掘을 계속 하였더니 비로소 南北 六〇尺、東西 九〇尺의 方形基壇의 嚴然함을 發見할 수 있었다. 基壇構造는 北、西、東邊의 三方은 암기와를 세워서 들렸고 南쪽은 같은 암기와를 合掌으로 짚다. (圖版 28 參照) 이것은 一次 發掘 基壇의 그것과 꼭 같은 形式으로 今次 發掘에서 처음 發見한 礎石은 實로 이 基壇 위 南列 礎石의 하나였던 것이다. 또 이 基壇 위에서 는 北列의 礎石 한 개와 積心있는 礎石 發掘址 數個處를 檢出하고 이에 의하여 基壇은 正面 九間의 建物址임을 推察할 수 있었다³³⁾」고 있다. 또 「北方基壇(講堂基壇)·中央基壇 北邊에서 發掘縱溝를 北으로 六〇尺 延長하여 새로이 東西로 뻗는 암기와列을 發見했다. (圖版 29 參照) 이에 따라 東西로 發掘을 계속하니 南北 六〇尺、東西로는 一五〇尺에 達하는 方形의 大基壇이 露出되었다. 그리고 이 基壇 北邊 中央에 東西 一六尺、南北 三〇尺의 突出部가 있어 突出部 北邊에는 半土管形의 기

와를 묻어 排水溝 같이 만든 것을 찾았다³⁴⁾」라 했고 이와 같은 形態의 方形의 經、鐘樓의 基壇으로 보이는 遺構가 東北과 西北에서도 發見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外裝을 갖는 基壇으로는 塔址인 南方 基壇에서 發見되었다. 즉 「南方 基壇·調査 進行에 따라 中央基壇 南쪽 三〇尺에 正方形의 基壇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基壇의 構造는 上述의 것과 달라 一邊 四六尺의 正方形의 周圍에 博을 돌리고 그 壇上 四周에 가까이 七個의 方形 木炭區가 配列되어 있고(圖版 30 參照) 또 方形基壇 中心을 發掘하니 地表下(基壇上面下) 約四尺에 金銅菩薩像、土器、鐵器等이 出土되고 五尺下에서 石佛像、金環、小玉等을 發見하고 六尺下에는 一邊長 三尺一寸의 方形으로 刻出된 大礎石을 發見하였다³⁵⁾」라 했다.

金剛寺址에서는 金堂址나 木塔址 中門址등에서는 創建時의 基壇 外裝 資料를 얻지 못했고 다만 講堂址와 講堂 뒤의 僧房址에서 그 痕跡을 찾을 수 있었다.

講堂址基壇石은 基壇 東南隅에서 北으로 一二尺 떨어진 位置에서 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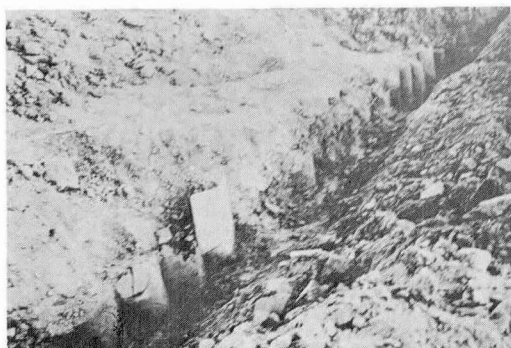


圖 28-1. 扶餘軍守里廢寺 中央基壇(金堂址)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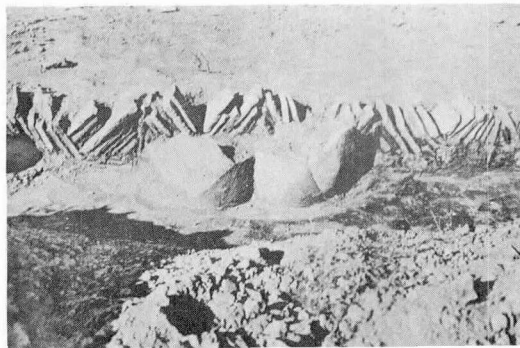


圖 28-2. 扶餘軍守里廢寺中央基壇(金堂址)南側의 瓦積



圖 29. 扶餘軍守里廢寺 北方基壇(講堂址)
南面の瓦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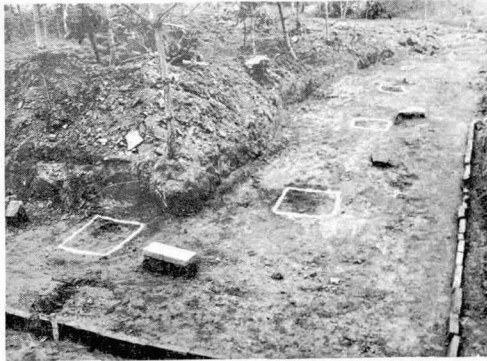


圖 30. 扶餘軍守里廢寺 南方基壇(塔址)



圖 31. 金剛寺講堂 東南隅

見되었다. 높이는 二·六尺, 幅 二·二尺 두께 五·五寸 内外의 板石인데 前面만은 平坦하게 加工하였다. 이것을 地台石 없이 그대로 땅에 박아 세웠는데 그 地上高는 約 一·六尺이다. 그 左右에 한 줄로 나타난 구멍들의 크기로 보면 이미 喪失된 基壇石들은 대개는 幅이 一·二尺 내지 二尺의 石材를 使用하였다. 구멍 깊이는 八寸 가량이 되지만 그 보다도 좀 깊거나 얕은 것도 있었다. 東南隅角에는 隅柱를 세웠던 자국이 確然하며 그 幅은 一·二尺 이었고 基壇石 위에 甲石의 存在 如否는 分明치 못했고 甲石으로 보이는 石材도 發見치 못했다. (圖版 31 參照) 僧房 基壇은 南北 二·九二尺, 東西 四·六尺이며 前面이 東面이었다. 基壇石은 높이 一·二~一·五尺, 길이 二~四·二尺의 長方形 板石을 東面에 使用하였고 뒷면인 西面에는 넷들을 二~三段 쌓아올려 基壇으로 삼고 있었다³⁶⁾.

益山 彌勒寺址는 寺址 全域의 整備 淨化를 위하여 一九七四年에는 東塔址가 發掘되었고 一九八〇年 七月 부터는 寺址 全域에 대한 發掘調査가 進行되고 있다. 發掘調査는 一九八〇年末 現在 東塔址 周邊에서 시

작되어 東塔 前面에 門址와 大築臺, 東塔 後面에서 法堂址가 發見되었고 塔과 法堂을 둘러싸는 複廊의 廻廊址가 發見되었다.

東塔址는 發掘結果 半壞狀態로 遺存하는 西塔과 同規模 同樣式의 石塔임이 밝혀졌고 그 基壇의 全貌도 알 수 있었다. ³⁷⁾ 基壇은 二重基壇으로 그 四面 中央에 石階段이 있었다. 上層基壇은 地臺石 위에 面石을 세우고 그 위에 甲石을 놓았다. 地臺石은 地盤에 固定시키고 上面에 한 단의 얕은 꺾임이 있어 여기에 面石이 맞추어졌다. 基壇 四隅에는 각각 隅石을 세웠으며 隅石은 面石 보다 二寸 정도 突出되게 만들었다. 下層 基壇上面은 上層基壇 地臺石 外緣에 따라 네모진 板石으로 鋪石하였고 鋪石 밑에는 鋪石 前端에서 一·五寸 안쪽에 地臺石과 面石의 區別이 없는 키가 큰 長大石을 놓았다. (圖版 32 參照) 階段은 側石이 地臺石, 三角形 面石, 傾斜지게 놓이는 甲石이 各各 別石으로 만들어져 있다. 階段 側石의 地臺石은 階段 前端까지 나오지 않고 地臺石의 先端部로 傾斜지게 놓이는 甲石이 닿는 部分은 階段의 첫 디딤돌의 兩端이 이에 該當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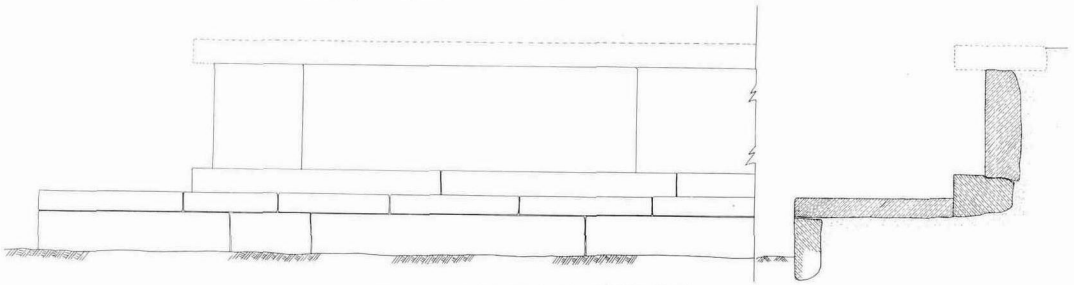


圖 32. 益山彌勒寺址 東塔址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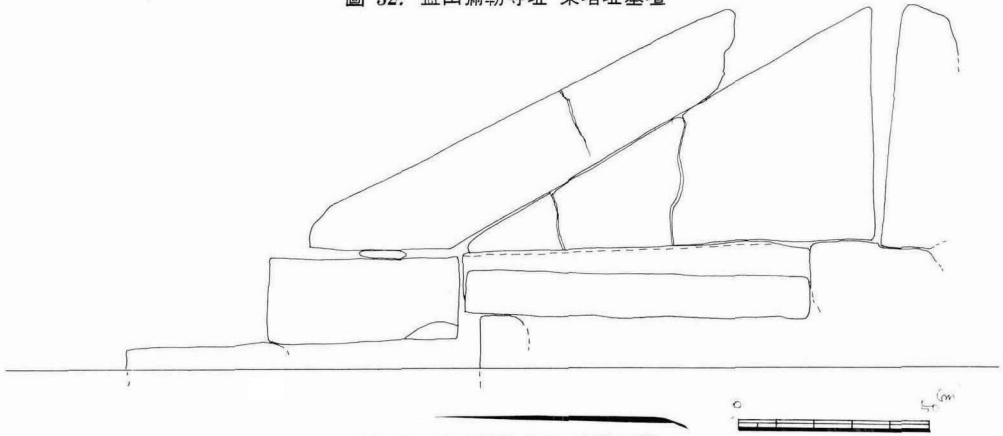


圖 33. 益山彌勒寺址 東塔石階

다. 따라서 階段의 첫 디딤돌 兩端에는 甲石 下端이 닿는 部分을 알게
 과 놓았다. (圖版 33 參照) 法堂 基壇도 그 構成은 塔 基壇과 똑 같으나
 (圖版 34 參照) 石階段은 基壇前, 後面 中央에 만 있었다. 法堂의 石階段
 역시 塔의 石階段과 똑 같은 構成이었다. (圖版 35 參照) 迴廊 基壇은 塔,
 金堂의 基壇과 달리 單層 基壇으로 地臺石과 面石의 區別이 없는 表面을
 比較的 精巧하게 治石한 長大板石 위에 역시 같이 治石된 甲石을 올린
 것이었다. (圖版 36 參照)

以上과 같은 各種 建物의 基壇 外裝으로 보아 百濟의 木造建築의 基
 壇 形式이 매우 多樣했음을 알 수 있다.

암기와와를 使用하여 만든 所謂 瓦積 基壇의 경우는 그 外裝材의 性格上
 地臺石의 인 裝置와 甲石의 人 裝置는 없다. 外裝方法에 있어서도 암기와
 를 세워서 並列하여 外裝하는 경우와 암기와 몇장을 포개어 그런 것을
 서로 合掌式으로 세워서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軍守里廢寺의 金堂 基
 壇의 경우 正面인 南面に 合掌式으로 他的 三面에 並列式으로 만든 것
 을 보던 合掌式의 瓦積이 좀 더 格이 높은 방식인 것 같다. 塼築 基壇
 역시 瓦積 基壇에 準하여 地臺나 甲石의 人 裝置 없이 長方形 塼을 포개어
 基壇으로 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軍守里廢寺의 塔 基壇에 採用된 것으
 로 보아 瓦積 基壇 보다는 格이 높은 것인 듯하다.

石造 基壇 가운데서는 二重 基壇과 單層 基壇이 있었다. 單層 基壇의 경
 우에는 金剛寺의 講堂 基壇과 같이 地臺石、面石、甲石의 區別 없이 거
 칠게 治石된 板石을 並列한 高句麗에서도 確認된 바 있는 基壇과 좀 더
 精巧하게 治石된 石材를 使用하여 地臺石 없이 面石을 세우고 甲石을
 올린 基壇도 있었다. 二重 基壇의 경우는 彌勒寺의 東塔과 東塔 뒤 法堂
 基壇에서만 그 外裝이 確認되었으나 上層 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이
 各各 別石으로 차여지고, 下層 基壇 上面은 鋪石되어 그 鋪石이 下層 基
 壇의 甲石이 되었다. 下層 基壇 面石은 地臺石 없는 長大板石이다. 따라
 서 百濟의 石造 基壇은 單層이든 二重 基壇이든 直接 地表에 닿는 部分은
 地臺石 없이 地臺石과 面石이 一體가 된 長大石으로 된다는 것이 共通



圖 34. 益山彌勒寺址 東塔北쪽 法堂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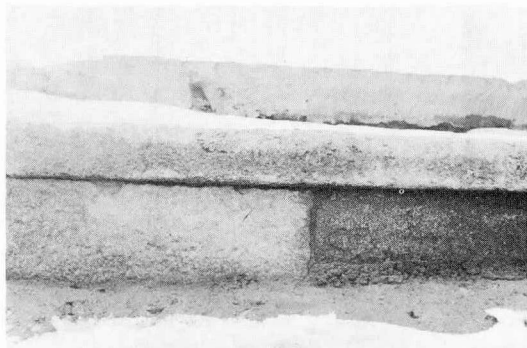


圖 36. 益山彌勒寺址 東塔東쪽 迴廊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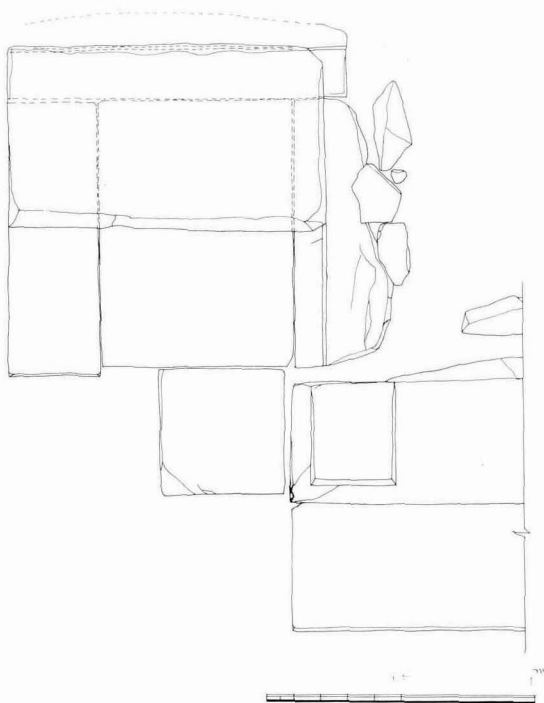


圖 35. 益山彌勒寺址 法堂石階

點이다. 단 二重基壇의 경우 下層基壇 上面의 鋪石은 彌勒寺의 경우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外裝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定林寺의 金堂의 경우는 全面鋪石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다른 上面 處理方法이 있었을 것이다.

基壇 上面의 外裝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資料가 發見되지 않았으나 극히 一般的인 剛灰다짐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三) 礎石·百濟의 木造建築의 礎石 역시 發見된 것이 意外로 적다. 扶餘의 軍守里와 佳塔里廢寺³⁸와 金剛寺址 및 彌勒寺址에서 確實한 百濟의 礎石이 發見되었을 뿐이다.

軍守里廢寺에서는 金堂基壇 上面에 上面과 그 輪廓을 精巧하게 治石한 正方形礎石이 남아있었고 木塔基壇 中央 地下에 木塔의 巨大한 正方形心礎가 있었다. 이들 礎石은 모두 圓形的인 石材 上面에 正方形礎石을 刻出した 것이다. (圖版 37 參照)

佳塔里廢寺 附近 民家에 散在하는 礎石은 두 種類 있어 하나는 方形臺石 上面에 낮게 圓形柱座를 刻出した 것이고 다른 하나는 軍守里廢寺의 것과 같은 正方形礎石이다. (圖版 38 參照)

金剛寺址에서는 創建當初의 礎石은 거의 原位置에 남아있지 않았다. 講堂 南側面에 接續된 迴廊基壇 上面에 두개의 圓形礎石이 있었으나 迴廊基壇이 當初의 것으로 보기에 어려워 이 礎石이 當初의 것을 再用한 것인지 뒤에 만들어진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 두 礎石을 包含하여 寺址 區域內에서 發見된 礎石은 도합 一四個였고 그 모두가 圓形礎石이었다. 이들 礎石의 크기는 각각 달랐으나 礎石 形式은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었다. 즉 거의 正方形臺石 上面에 精巧하게 圓形으로 礎石 輪廓을 刻出した 形態와 圓形臺石 上面에 精巧하게 圓形礎石 輪廓을 刻出하여 上面을 곧게 治石한 것이다. 一四個 礎石 中에서 가장 큰 礎石의 하나는 좀 特異하다. 이것은 正方形臺石 上面의 두 모를 크게 깎고 다른 한 곳은 작게 또한 곳은 破損되어 크게 弧形을 이룬 것이다. 이 礎石이 어떤 곳에 사용된 礎石인지 짐작되지 않았다. 이들 一四個의 礎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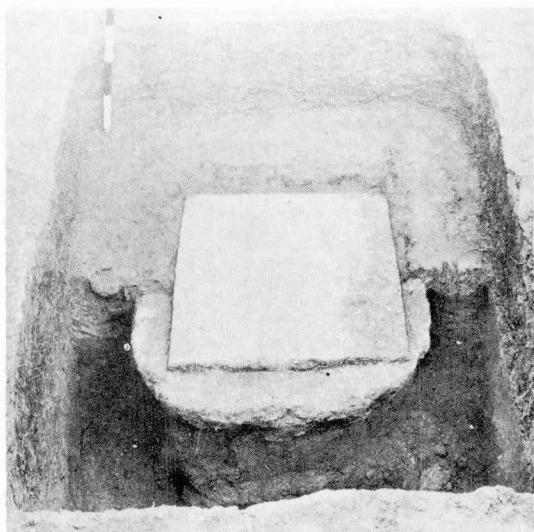


圖 37. 扶餘軍守里廢寺 南方基壇發掘塔中心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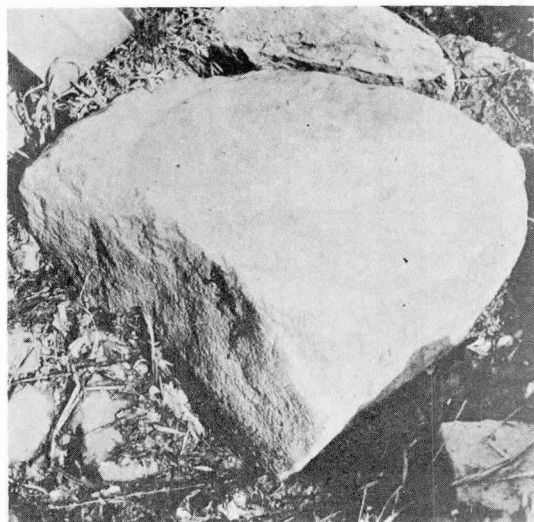


圖 38-1. 扶餘佳塔里遺跡(部落에 搬出된 礎石)



圖 38-2. 附近的 계류측에 남은 초석

果然 百濟時代 礎石인지 또는 그 후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나 統一新羅의 特徵的인 圓形柱座를 갖는 礎石과 比較한다면 적어도 百濟的인 礎石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圖版 39 參照)

彌勒寺址에서는 東塔 北쪽 法堂址에서 거의 原位置에 놓인 많은 礎石이 確認되었고 廻廊址에서도 原位置에 남은 礎石은 적지 않게 發見하였다. 法堂 礎石은 매우 異質的인 礎石으로 마치 높은 石柱 上面에 상당히 높은 圓形柱座를 刻出한 그런 것이다. (圖版 40 參照) 이와 꼭 같은 礎石이 西塔 北쪽 法堂址에서 地上에 露出되어 있다. 아직 이들 礎石 밑을 調査하지 않았기에 그 높이나 礎石 밑 裝置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와 같은 木造建築礎石은 다른 곳에서는 發見되지 않았다. 廻廊礎石은 세가지 形態의 것이 남아 있다. 그 하나는 金剛寺에서 본 것 같은 圓形臺石 上面에 圓形的 礎石 輪廓과 上面을 곧게 治石한 것이고 들쭉는 앞

圓形臺石의 直徑에 比하여 柱座 直徑이 작고 좀 더 높게 柱座를 刻出한 것이다. (圖版 41 參照) 이들 세가지 礎石의 어느 것이 創建當初의 것인지 區別하기 어려우나 모두가 百濟의 礎石 또는 百濟的인 礎石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百濟의 礎石은 方形礎石과 圓形礎石이 있으며 柱座를 刻出하는 경우에도 統一新羅의 礎石과 같이 높게 그리고 柱座 斷面을 弧形으로 刻出하지 않고 直角으로 刻出하는 것이 特徵임을 알 수 있다.

나. 軸 部

(一) 기둥 百濟 木造建築遺構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具體的으로 示唆하는 資料는 없다. 따라서 木造建築의 기둥뿐만 아니라 斗栱이나 屋蓋架構등을 正確히 알 길이 없다. 다만 百濟의 木造建築과 關連이 깊은 것으로 생각되는 石造建築이나 日本에 遺存하는 木造建築등을 援用하여 考察할 수 밖에 없다.

百濟의 石塔은 二基가 남아 있다. 益山 彌勒寺址石塔(西塔)과 扶餘 定林寺址五層石塔이다. 이들 두 石塔의 初層 塔身의 四角柱인 隅柱를 보면 모두 上狹下寬의 기둥 上部가 弱한 曲面으로 處理되어 마치 기둥의 배흘림을 象徴하는 듯한 느낌이다. (圖版 42 參照) 그러나 隅柱의 壁쪽 線은 거의 直線的으로 治石되어 果然 그것이 배흘림기둥을 나타낸 것인지 또는 민흘림기둥을 나타낸 것인지는 確實치 않다. 百濟工匠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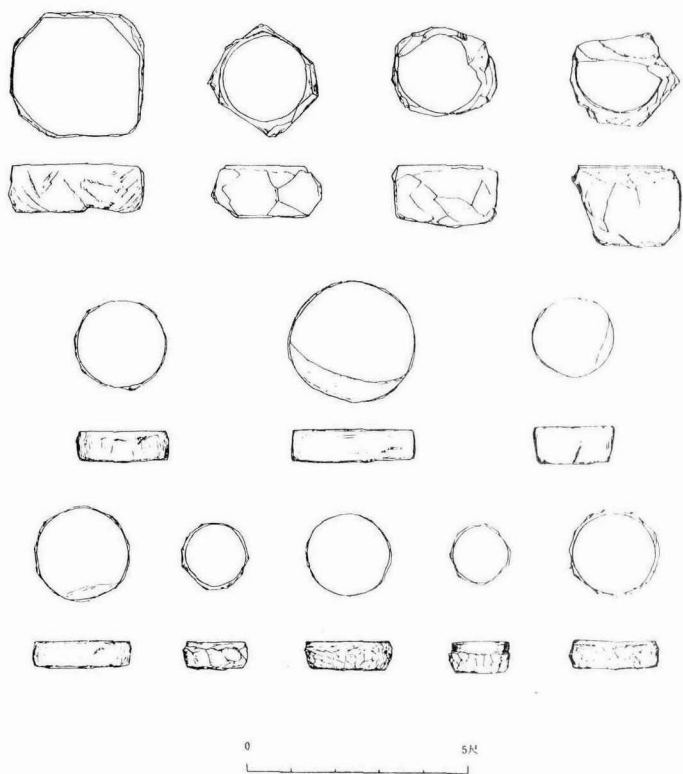


圖 39. 金岡寺址出土 礎石實測圖

六世紀末이나 七世紀初에 建立된 것이라고 傳하는 日本 奈良의 法隆寺의 後身인 現 法隆寺의 金堂, 五層木塔, 中門 및 廻廊 등의 建物は 創建建物を 燒失된 후 七世紀末頃に 再建된 것이기는 하나 그 建築樣式은 創建建物を 거의 그대로 踏襲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法隆寺의 主要建物の 기둥은 圓柱로서 상당히 強한 배흘림을 가졌다. 따라서 百濟의 木造建築 역시 權威的 建物の 主要 기둥에는 圓柱가 많았고 그 기둥

에는 배흘림이 있었다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기둥머 리에는 四角의 柱斗가 있는데 法隆寺의 主要建物の 柱斗에는 모두 두툽한 굽받침이 있다. 이들 기둥과 柱斗의 모습은 高句麗의 그것과 相通되는 것이다. 이것이 百濟 初期 즉 高句麗의 建築을 그대로 계승한 時期의 傳統을 이은 것인지 그 후 導入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中國南 朝系의 建築의 기둥이나 柱斗도 그러했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二) 斗栱: 木造建築의 斗栱에 관해서는 百濟의 두 石塔은 아무런 資料도 提供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援用資料로서 法隆寺의 建物を 參考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는 便宜上 法隆寺 金堂建物を 參考하겠다.

法隆寺 金堂은 正面 五間, 側面 四間의 重層 팔각지붕 建物이며 一層 屋蓋 밑에 木造遮陽(裳階·모꼬시)이 달 려다. 金堂의 기둥 위 斗栱은 建物 外壁에 선 기둥 斗栱 과 內부에 선 기둥 斗栱이 서로 다르다. 建物 外壁에 있 는 기둥 斗栱은 柱斗 위에 左右로 벌리는 翹차가 놓이고 翹차 兩端에 모가 둥근 三段의 逆階段形 소로가 올려졌 다. 翹차는 下端部가 全體的으로 배 바닥처럼 曲面을 이 루었고 兩端은 좀 外反한 느낌으로 垂直으로 切斷되었다. 建物 前方으로 突出하는 斗栱은 翹차와 소로의 區分이 뚜렷하지 않고 翹차 밑 바닥이 둥근 낮은 四段으로 段이



圖 42-1. 彌勒寺址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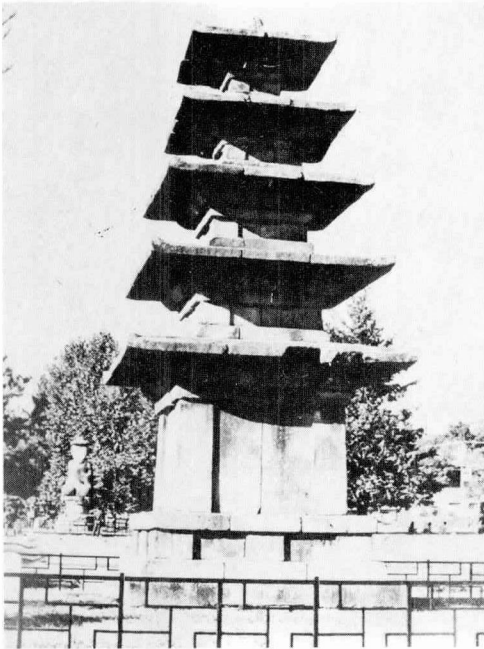


圖 42-2. 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

지고 끝部分 역시 曲線의
 으로 마감되고 그 上面에
 침차와 거의 一體가 된 二
 段의 曲線의 逆階段式의 소
 로가 놓였다. 이러한 斗栱
 을 日本에서는 雲形肘木
 (雲形침차)이라 한다. (圖版
 43 參照) 建物 内部의 기
 등 위 斗栱은 下端이 배
 밑바닥처럼 曲面으로 된 침
 차를 十字로 짜서 柱斗 위
 에 올리고 그 침차 中央과
 네 침차 끝에 楹받침 없고
 굽이 內反한 소로를 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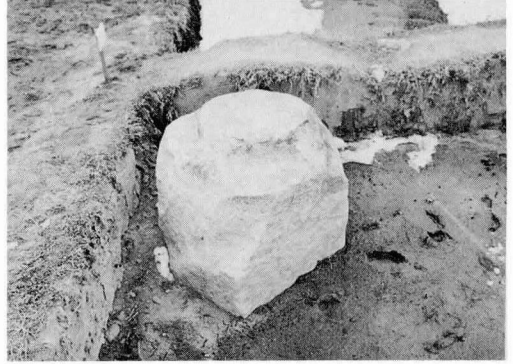


圖 40. 益山彌勒寺址 東塔北竈 法堂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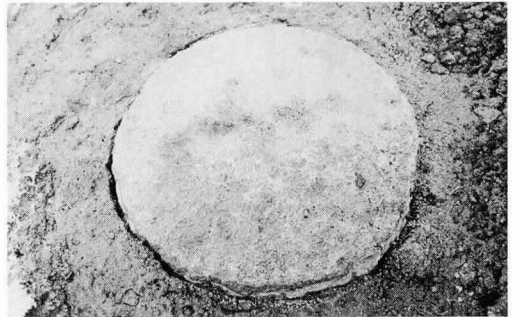


圖 41-1. 益山彌勒寺址 東塔周邊迴廊礎石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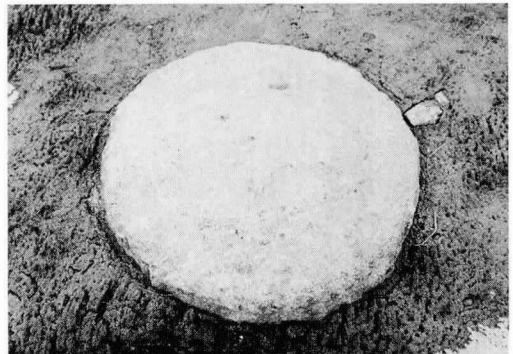


圖 41-2. 益山彌勒寺址 東塔周邊迴廊礎石 II



圖 41-3. 益山彌勒寺址 東塔周邊迴廊礎石 III



圖 43. 法隆寺 金堂 西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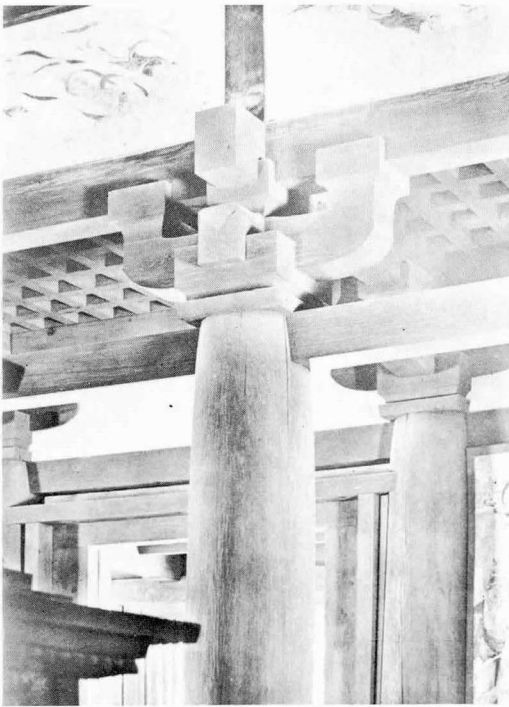


圖 44. 法隆寺 金堂內部斗拱

法隆寺 廻廊 屋蓋架構은 기둥 위의 柱斗에 보를 걸고 보 위에 두 발을 넓게 벌린 人字形台工形의 소슬승掌을 올려 소슬승掌 위의 小斗 위에 宗道里方向으로 三斗를 갖는 한 겹의 斗拱을 올렸다. 斗拱의 三斗가 宗道里 밑바

앞뒤에 약간 內反한 部材로 된 소슬승掌을 올려 童子柱를 補強했다. (圖版 46 參照) 이 모습은 마치 安岳三號墳의 厨房圖의 厨房合閣의 處理와 비슷하며 소슬승掌이 人字形台工을 大形化한 모습이다.

고 있다. (圖版 44 參照) 마치 建物 外壁의 기둥의 斗拱은 高句麗의 安岳一號墳 柱形圖의 斗拱과 相通되고 建物 內部 기둥과 斗拱은 安岳二號墳의 柱形圖와 相通된다. 어쨌든 이 曲線的인 斗拱은 앞에서 말한 마와 같이 中國 南朝系 建築의 斗拱形式이며 百濟가 中國 南朝와의 交流를 通하여 導入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日本으로 輸出하여 法隆寺의 金堂 斗拱으로 된 것일 것이다.

百濟에 南朝系 斗拱인 曲線的 斗拱이 있었다는 것은 確實하나 百濟 中期以後의 木造建築이 모두 曲線的 斗拱을 使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얼마간 百濟의 木造建築이 變形되기는 했을지라도 高句麗의 建築과 같은 그런 斗拱을 使用한 建物이 더욱 많았고 曲線的 斗拱은 新樣式으로서의 興味로 一部 建築에 使用된 것이고 또 그것이 新樣式이기 때문에 日本에 輸出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면 法隆寺 金堂의 斗拱이 內部와 外部 모두 三段의 曲線的 逆階段式 소를 올려서 架構하더라도 아무런 支障이 없는 데도 內部에는 傳統的 斗拱을 올리고 있고 建物

外部에만 意識의 新樣式 斗拱을 使用한 것은 그 新樣式을 誇示하려는 意圖가 숨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와 같은 處理는 法隆寺의 가장 重要한 建物인 金堂과 塔에서만 볼 수 있고 같이 세워진 中門이나 廻廊에서는 모두 傳統的 斗拱을 使用하고 있는 點으로도 알 수 있는 事實이다.

다, 屋蓋部

(一) 屋蓋架構: 屋蓋架構 역시 實地 遺構가 없기 때문에 法隆寺의 建物 架構를 參考하지 않을 수 없다.

法隆寺 金堂 上層 屋蓋架構는 二重梁構造이다. 내들보 위 中央과 兩端 가까이 童子柱를 세워 童子柱는 덥보 兩端과 中央을 支撐한다. 덥보 위 中央에도 역시 童子柱를 세워서 宗道里를 받치게 했다. (圖版 45 參照) 構造의 由로 매우 簡潔하면서도 機能的인 架構임을 알 수 있다. 지붕이 팔각지붕이기 때문에 지붕 合閣에 나타난 架構는 合閣을 덥보 위 部分에서 構成하고 덥보 中央에서 宗道里를 받치는 童子柱를 세우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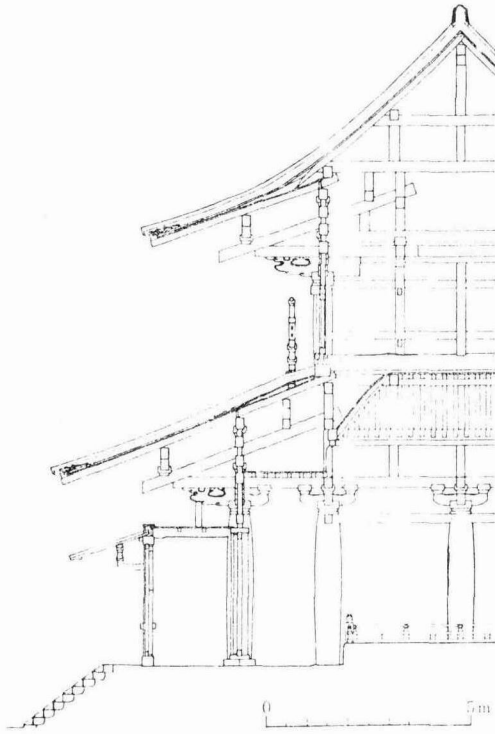


圖 45. 法隆寺金堂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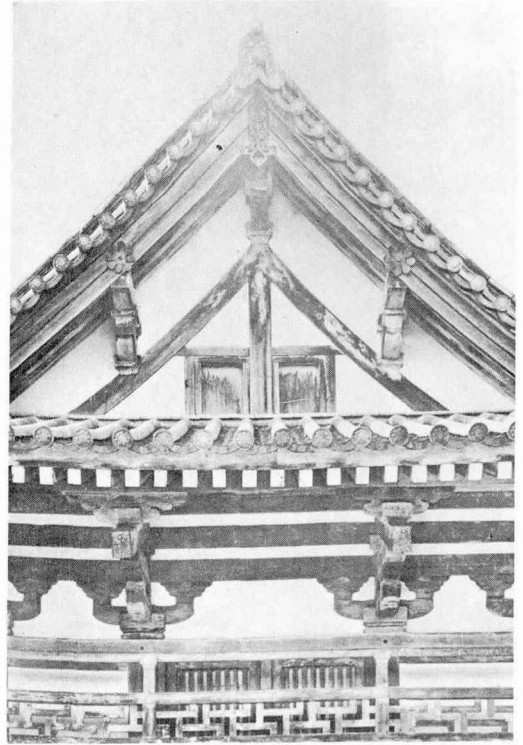


圖 46. 法隆寺金堂合閣

다를支撐한다。(圖版 47 參照)

以上과 같이 法隆寺의 金堂이나 廻廊의 屋蓋架構는 매우 簡潔한 手法로 施工되었고 이것은 高句麗의 木造建築 屋蓋架構와 별 다른 점이 없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木造建築의 架構는 細部 意匠에 일마간의 差異는 있었다 하더라도 高句麗나 百濟 따라서 日本에서도 別 差異 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事實은 新技法에 의한 發達된 新建築의 初期的 樣相으로 當然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二) 屋蓋形態…百濟 木造建築 屋蓋를 나타내는 資料는 단 하나이기도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扶餘郡 窺岩面 外里의 傳天王寺址에서 一九三七年에 發見된 많은 方形紋樣 磚 속의 山景紋樣에 새겨진 家屋紋이다. 이 山景紋樣 紋樣面 右下部에 左向한 僧侶像을 가는 突線으로 나타내었고 紋樣 中央 쯤 밑에 치우쳐 팔각지붕의 家屋을 역시 가는 突線으로 나타내었다. 家屋은 右端의 僧侶像과 아울러 생각하여 小佛庵으로 나타 팔각지붕의 建物이다. 그러나 팔각지붕 表現이 보통 팔각지붕과는 다르



圖 47. 法隆寺金堂西廻廊

다. 즉 지붕 上半部를 맞배지붕같이 表現하여 그 지붕의 傾斜面과 合閣部 밑에 각각 椽間을 내려 지붕을 올린 것 같이 表現된 것이다. (圖版 48 參照) 이런 形態의 지붕 즉 맞배지붕 四面에 椽間을 달아 그 위에 傾斜된 지붕을 올린 것 같은 形態로 構成된 지붕은 法隆寺 所藏의 宮殿形佛龕인 「玉虫厨子」에서 볼 수 있다. (圖版 49 參照) 그리고 日本에서는 이러한 形態의 지붕을 「시코로부키(鉸葺)」지붕이라 부르며 一般形態의 팔작지붕의 先行形態라고 한다. ③⑨ 팔작지붕의 發生과 그 形態에 관해서는 別稿에서 ④⑩ 筆者가 考察한 바 있으나 「시코로부키」지붕이 팔작지붕의 先行形態라고 보지 않는다. 一般的인 팔작지붕은 高溫多濕한 南方地域에서 先史時代부터 存在했고 뒤에 新技法에 의한 木造建築이 發生되자 처음부터 中國 華南地方에서 發生한 것이고 「시코로부키」지붕은 이 팔작지붕의 한 變形意匠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玉虫厨子の 팔작지붕은 그것이 宮殿形의 小形佛龕이기 때문에 比較的 變化가 많은 建物軸部에 비해 큰 面積을 갖는 지붕에 變化를 갖게하여 全體의 意匠的 調和를 폐한 것이거나 혹은 小形の 建物模型의 妙味를 내기 위한 意匠인 듯하다. 山景紋塼의 家屋紋의 지붕 역시 變形팔작지붕으로 表現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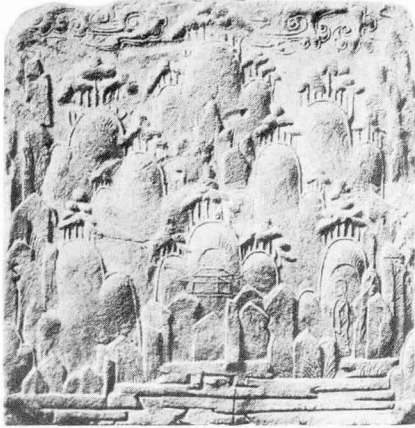


圖 48-1. 山景紋塼



圖 48-2. 山景紋塼에 나타난 家屋

은 全體 紋樣 속에서 아주 작은 家屋紋을 強調하기 위해 採擇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땅은 百濟에는 高句麗에서는 보지 못했던 팔작지붕이 있었던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팔작지붕은 百濟가 中國 南朝와의 交流를 통하여 그곳 木造建築에 使用되었던 팔작지붕을 導入한 것이며 그것을 곧 日本으로 輸出했던 것이다. 따라서 百濟에는 高句麗에서 이어받은 우진각지붕과 가장 普遍的 지붕인 맞배지붕을 갖는 建物과 팔작지붕을 갖는 建物이 있었던 것이다.

(三) 기와.. 百濟 기와 역시 솟기와와 암기와 以外에 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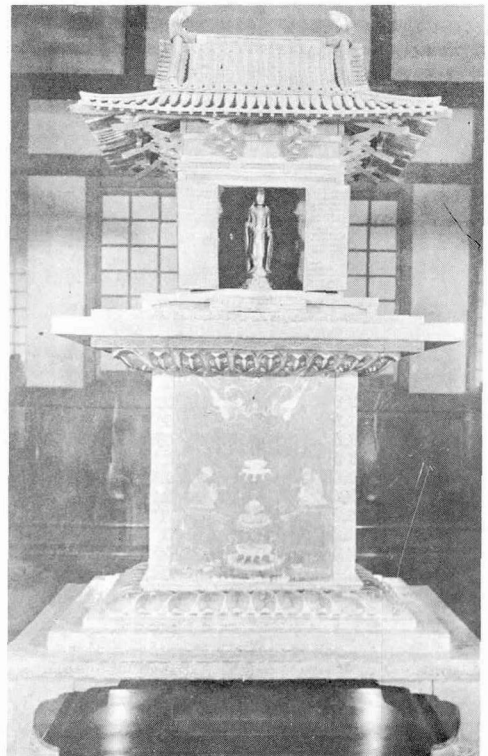


圖 48-3. 玉虫厨子



圖 50-2. 百濟蓮花紋瓦當〈扶餘邑 扶蘇山〉



圖 50-1. 百濟蓮花紋瓦當〈扶餘邑 舊校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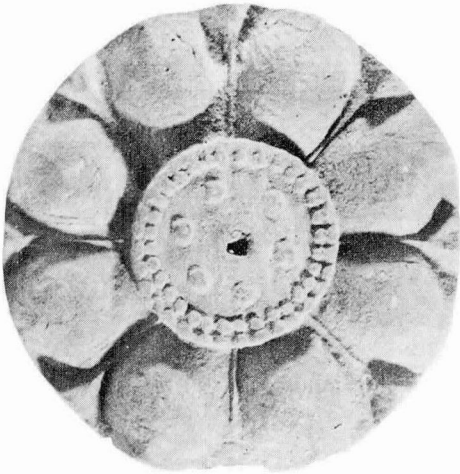


圖 50-4. 百濟蓮花紋瓦當〈扶餘邑 東南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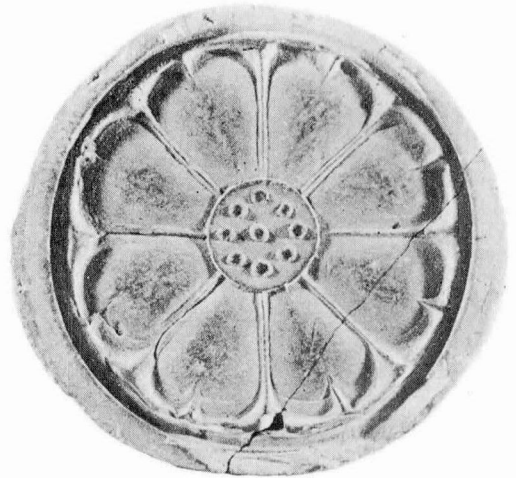


圖 50-3. 百濟蓮花紋瓦當〈扶餘郡 恩山面 琴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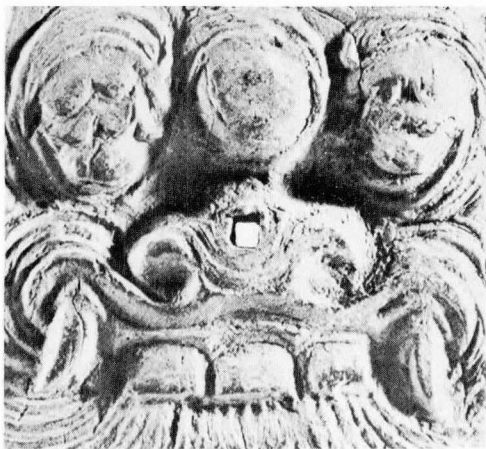


圖 50-6. 百濟鬼面紋瓦當〈扶餘邑 東南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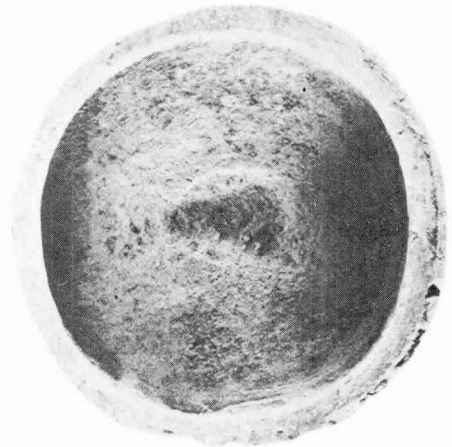


圖 50-5. 百濟蓮花紋瓦當〈扶餘邑 東南里〉

로는 수막새기와가 있을 뿐이고, 鷓尾와 鬼面瓦가 있었다. 이 밖에 高句麗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지붕 서까래 끝을 保護하며 裝飾的 效果를 내는 서까래기와가 상당히 많이 發見되어 있다.

百濟 初期의 수막새가 漢江流域에서 한 두 점 發見되고 있으며 이들은 高句麗의 影響을 强하게 느끼게 하는 蓮花紋이었다. 公州, 扶餘地方에서 出土되는 수막새 역시 대부분이 素瓣 蓮花紋이다. 蓮花紋은 花瓣이 六瓣 또는 八瓣이며 八瓣으로 된 것이 壓倒적으로 많다. 紋樣 中央에는 圓形 珠房이 있고 珠房에는 七個 또는 九個의 珠紋이 있다. 蓮瓣은 오래된 것은 平面的이며 점차 立體的으로 變한다. 蓮花紋 以外の 수막새 紋樣으로는 鬼面紋이 있고 卍字紋도 若干 發見되어 있으며 기와 周緣만 높게 만들어 막새 紋樣面에는 아무런 文樣이 없는 素紋수막새도 있다. 이 밖에 扶餘國民學校西方에서 出土되었다는 高句麗式 蓮花紋수막새도 注目할 만한 것이다. ④)

서까래기와는 수막새의 周緣部를 除去하고 珠房 中央에 못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기와 紋樣은 거의가 매우 立體的인 蓮瓣을 갖는 蓮花紋으로 대부분이 圓形기와이다. 그러나 극히 稀少하나 四角의 獸面서까래기와도 發見되고 있다. 당시의 建物の 서까래는 圓形, 그 끝에 놓이는 浮椽은 斷面이 四角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는 浮椽 끝기와와로 생각된다. (圖版 50 參照)

라, 木造建築의 復元

百濟의 木造建築은 그 初期에는 高句麗와 꼭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점차 中國南朝와의 自主的인 交流를 통하여 적지 않게 中國南朝 建築의 影響을 받아 高句麗와는 다른 百濟의 個性이 뚜렷한 建築으로 發展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고 上述한 바 日本 法隆寺의 建築이나 玉虫厨子들을 考察하여 推測할 수 밖에 없다.

百濟의 木造建築의 架構手法이나 그 構造는 高句麗와 基本的으로 差異가 없는 것임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다만 建築 細部 樣式에 있어서는

樞朝系 樣式的 導入 또는 混用으로 어느 程度의 變化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變化의 하나가 法隆寺의 雲形침차일 수 있고 지붕 모습에서 팔자지붕의 出現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建築物 全體가 풍기는 느낌은 점차 高句麗의 剛直하고 重厚한 느낌을 벗어나 彌勒寺址石塔이나 定林寺五層石塔 등에서 느낄 수 있는 輕快하고 溫和한 느낌의 것으로 바뀌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三, 古新羅建築

新羅에 新建築이 建立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五世紀初일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에 巨大한 規模를 갖는 積石木槨墳이 造營되는 時期에는 新建築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古墳 內部の 木槨의 構造나 木棺 또는 遺物收藏櫃 등의 製作技法이 充分히 新建築技法을 바탕으로 한 發達된 木工具를 驅使하여 製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④) 그러나 古新羅의 木造建築에 관한 資料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建物址 즉 廢寺址의 發掘調査는 興輪寺址와 芬皇寺의 一部 地區과 永興寺址라고 傳하는 地域에서 實施된 바 있으며 皇龍寺址에서 寺址 全域에 대한 發掘調査가 進行中이나 이들 調査 가운데서도 建物 基壇에 관한 比較的 確實한 資料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皇龍寺址 뿐이다. 다른 모든 調査에서는 一部 建物の 基壇築土에 관한 약간의 資料를 얻을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古新羅의 木造建築에 관한 軸部와 屋蓋에 관한 直接的 資料는 기와 以外에는 전혀 없고 또 比較檢討될 만한 石塔이나 外國 建物도 없다. 따라서 軸部와 屋蓋 등에 관해서는 建築 以外的 各種 文物 資料와의 相關關係를 통한 推測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가, 基壇部

(一) 基壇築土: 皇龍寺 金堂基壇 構築土는 땅을 깊이 파서 赤褐色砂質粘土와 黃褐色砂質粘土를 交互로 다지고 쌓아올린 典型的인 版築法으로 되었다. (圖版 51 參照) 塔基壇은 金堂과는 달리 땅을 깊이 판 바닥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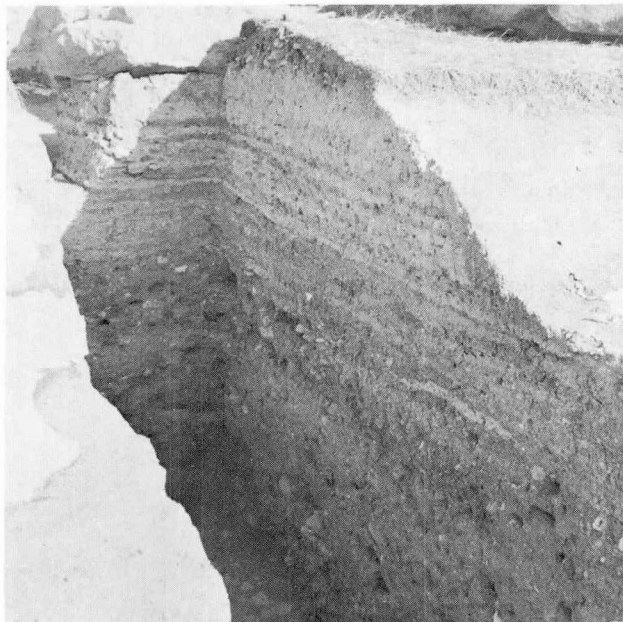


圖 51. 皇龍寺 金堂址土層狀態(版築)



圖 52. 皇龍寺 木塔址基壇築造狀態

人頭大의 넷돌을 한벌 깔고 그위에 赤褐色粘土를 얹게 깔고 다진 위에 다시 넷돌을 깔고 흙으로 다지는 方法을 무려 二〇餘번이나 계속하여 基壇이었다。(圖版 52 參照) 이러한 基壇構築法은 처음 確認된 方法이며 아직 다른 建築址에서는 確認된 바 없는 것이다. 아마 版築法을 變改하여 흙 대신에 넷돌을 넣어 더욱 堅固한 基壇을 만들려는 新羅의 個性的 創作인가 싶다. 皇龍寺의 講堂, 中門, 講堂 左右의 建物 및 廻廊 등의 基壇들을 모두 比較的 깨끗한 赤褐色砂質粘土를 굳게 다지며 쌓은 一般的인 基壇이었다. 芬皇寺의 創建 金堂基壇은 어찌면 皇龍寺 塔基壇 과 같은 構築法인지 모르겠으나⁴⁸ 그 밖의 興輪寺 講堂과 廻廊등은 모두 黃褐色砂質粘土로 다진 基壇이었다. 따라서 古新羅의 基壇構築法은 重要 建物에는 版築法이나 版築法을 變改한 土石混築이 採擇되고 一般的인

로는 整地된 地盤에 精選된 赤褐色砂質粘土 등의 土壤으로 築造된 것을 알 수 있다.

(二) 基壇外裝 · 皇龍寺址의 여러 建物遺構에는 礎石과 廻廊의 基壇石 以外에는 거의 大部分의 石材가 朝鮮時代에 山城補修材로 搬出되어 남아 있는 것이 극히 적다. 그러나 간간히 元位置에 남았거나 좀 移動된 基壇外裝材와 遺構殘存狀態로 여러 建物の 基壇外裝狀態를 復元的으로 考察할 수 있다.

金堂基壇은 二重基壇으로 下層基壇은 地台石, 面石, 甲石의 區分없이 長大石으로 만들었고 上層基壇은 地台石과 面石, 甲石으로 構成되었다. 上層基壇 上面에는 金堂 本建物の 礎石이 配置되었고 下層基壇 上面에는 遮陽기둥을 받치는 좀 작은 礎石이 配置되었다. 上層基壇 上面에서는

敷博이 發見되지 않았으나 配置된 礎石의 모습으로 보아 佛像들이 安置된 內陣은 佛壇을 設置하였거나 剛灰다짐으로 마감했고 外陣에는 博을 깔 것 같았다. (圖版 53 參照) 下層基壇 上面은 敷博이 一部 遺存하여 遮陽礎石 以外的 部分에 博을 깔 것이 確實했다.

木塔基壇 역시 二重基壇이었으며 下層基壇은 매우 退化된 形式으로 마치 單層基壇 周圍에 博을 깔고 그 輪廓을 石材로 마감한 것 같은 樣은 基壇이었다. 上層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基壇이었으나 石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上層基壇 上面은 中央에 巨大한 塔의 心礎石이 있고 一邊 七間의 初層塔身에 使用된 礎石이 配置되어 있었으나 그 가운데 中央 一邊 三間은 剛灰다짐으로 마감했거나 혹은 다른 施設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 外部는 敷博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礎石 모습으로 보아 博을 깔 것 같았다. (圖版 54 參照) 그런데 塔基壇에는 下層基壇 輪廓石材에서 約 1m 밖에 上面 幅約 一五cm의 긴 石材를 돌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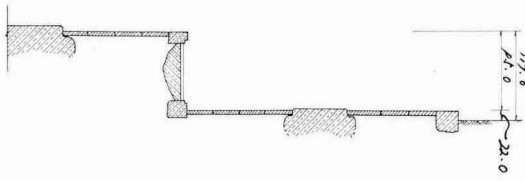


圖 53. 皇龍寺 金堂基壇斷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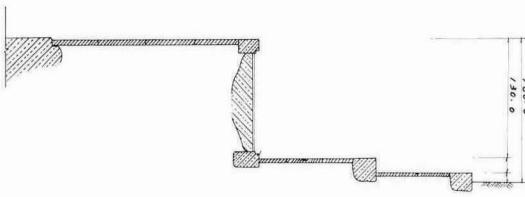


圖 54. 皇龍寺 木塔基壇斷面



圖 55. 皇龍寺 木塔址 西北隅基壇(塔區)

었다. (圖版 55 參照) 이것은 統一新羅時代에 建立된 佛國寺三層石塔基壇 外周에 둘러진 金剛蓮花座를 包含한 區劃의 前身的 施設인 듯 하며 이를 塔區라 부르기도 한다. 이 塔區의 始源이 무엇이었는지 確實하게는 알 수 없으나 皇龍寺 木塔基壇의 경우는 이 塔區 石材 上面이 舊地表보다 좀 높게 設置된 것 같이 보기에 어찌면 三重基壇의 退化된 形式이 塔區로 變換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塔區는 統一直後에 建立된 感恩寺 西塔에서도 上面을 鋪石하여 갓들을 돌린 形態로 確認된 바 있다. ④

講堂과 講堂 左右의 가늘고 긴 建物 및 廻廊의 基壇은 金堂 下層基壇과 같은 地臺石、面石、甲石의 區分이 없는 長大石으로 된 單層基壇이며 塔東南과 西南에 있는 鐘樓와 經樓로 보이는 建物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을 갖춘 石造基壇이었다. (圖版 56 參照)

金堂基壇에는 正面에 三個所 後面 中央에 一個所의 石階段이 있었고 塔基壇에는 前面에 三個所, 그 밖의 三면에는 각각 中央에 一個所 石階段이 있었다. 이들 階段은 그 遺存狀態로 보아 側石이 地臺石、直角三角形의 面石 그리고 傾斜지게 놓이는 甲石의 三部材로 構成되어 있었고 皇龍寺의 그밖의 建物 階段側石도 모두 그리하였다. (圖版 57 參照) 그러나 皇龍寺의 이와 같은 三部材로 된 階段 側石은 百濟의 彌勒寺 東塔과 그 北쪽 法堂 基壇의 階段 側石과는 달라 側石 地臺石이 질계 앞으로 나와 그 先端에 甲石 前邊이 닿고 거기에 垂直으로 세운 小石柱의 홈구멍이 뚫려있다. 그리고 階段의 첫 디딤돌은 이 側石 안쪽에 놓이게 되어 彌勒寺 東塔이나 法堂 階段의 첫 디딤돌같이 그 兩端이 階段側石의 地臺石의 先端部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構成으로 된 階段 側石은 統一初期에 建立된 感恩寺나 高仙

寺의 金堂과 講堂 基壇 등에서 볼 수 있고 ④佛國寺 毗盧殿 基壇에서도 볼 수 있었다. ④ 그러나 佛國寺 大雄殿과 極樂殿 및 觀音殿 基壇의 階段側石은 地臺石、面石、甲石을 한 돌에 새겨서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皇龍寺의 여러 建物 基壇의 階段側石의 構成은 古新羅에서 統一新羅 初期까지 常用되었던 形式이라고 할 수 있겠다.

(三) 礎石 : 古新羅의 建物 礎石은 皇龍寺、芬皇寺、興輪寺 등 遺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遺跡에 남아있는 모든 礎石이 古新羅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寺刹은 創建된 후에 寺刹로서 運營되어오는 동안에 増築、改築、重建 등의 佛事가 계속되어 寺刹마다 礎石들이 製作使用되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 寺址에 遺存하는 礎石을 가운데 分明히 古新羅代의 것으로 믿어지는 礎石은 모두 方形 礎石들이다.

皇龍寺 金堂 上層基壇 上面에 配置된 礎石은 모두 方形 礎石이다. 그러나 그 礎石 모습에는 두가지 類形이 있다. 즉 內陣의 礎石들은 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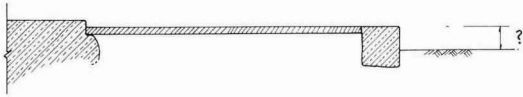


圖 56. 皇龍寺 講堂基壇斷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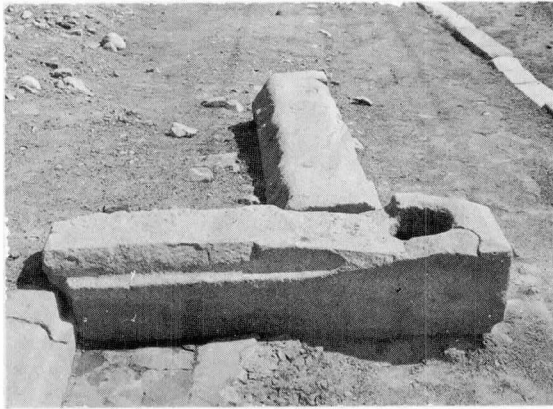


圖 57. 皇龍寺 木塔址 南쪽 西階段

補充 또는 轉用된 것으로 보이는 七個의 礎石 以外の 十一個의 礎石은 內陣에 面한 쪽은 한단의 礎石이 있고 外陣에 面한 쪽은 두단의 礎石을 갖는 方形 礎石이다. (圖版 58 參照) 그리고 後補 또는 轉用된 礎石으로 보이는 七個의 內陣 礎石과 外陣의 모든 礎石은 礎石의 한 단인 方形 礎石이다. 內陣의 礎石이 한 단과 두 단으로 된 礎石은 礎石의 높이가 한 단의 경우 五 cm 程度, 두 단의 경우는 각각 二·五 cm 정도 높이의 礎石이 있다. 또 外陣의 礎石은 모두 方形으로 刻出한 礎石 上面의 높이가 五 cm이다. 이러한 礎石 形態로 보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金堂 上面의 外陣에는 塼을 깔고 內陣에는 剛灰다짐으로 마감했거나 佛壇 등 施設을 만들었다는 根據가 되는 것이다. 즉 敷塼의 두께가 四 cm 정도였을 것이다. 金堂下層基壇 上面의 礎石은 正方形 또는 長方形的인 礎石이었으며 그 크기는 上層基壇 礎石에 比較하여 훨씬 작은 것이었다.

皇龍寺 木塔基壇의 礎石 역시 두가지 類形이 있었다. 塔은 初層이 方七間인데 그 가운데 中央의 方三間의 礎石은 上面이 平坦한 方形에 가까운 石材를 사용했고 上面을 方形으로 治石하지 않은 自然石으로도 보이는 것이었다. (圖版 59 參照) 그 外部의 礎石은 거의 方形의 石塊 上面을 正方形으로 刻出하여 만든 方形 礎石 즉 礎石이 한 단의 方形 礎石이고 그 礎石의 높이도 五 cm 程度였다. 따라서 塔의 경우도 金堂과 같이 基壇 上面 中央은 剛灰다짐으로 마감했거나 佛壇 등의 施設을 했을 것이고 그 바깥은 塼을 깔 것으로 判斷되었다.

興輪寺址와 芬皇寺 등에 散在하는 方形 礎石에는 서로 크기의 차는 많으나 거의가 塊石 上面을 方形으로 刻出한 礎石이었다. (圖版 61 參照) 興輪寺의 礎石은 刻出된 礎石의 높이가 五 cm 程度의 것이 많았고 芬皇寺의 礎石은 二·五 cm 程度로 아주 낮거나 처음부터 石材를 方形으로 治石한 礎石이었다. 礎石의 礎石의 높이가 五 cm 나 되는 것은 그 周圍에 塼을 깔 가능성이 많고, 礎石이 낮은 것은 周圍를 剛灰다짐으로 마감한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礎石을 安置하는 方法은 皇龍寺의 경우는 建物에 따라 여러 方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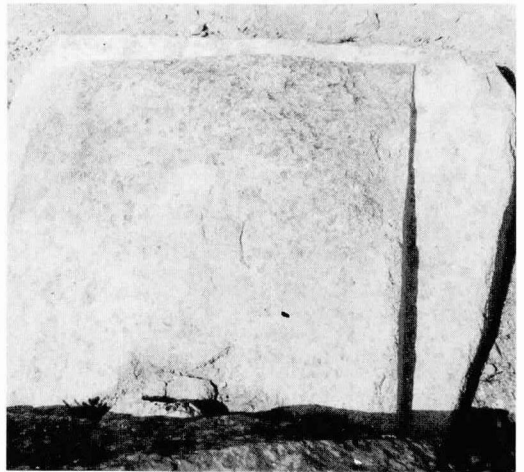


圖 58. 皇龍寺 金堂址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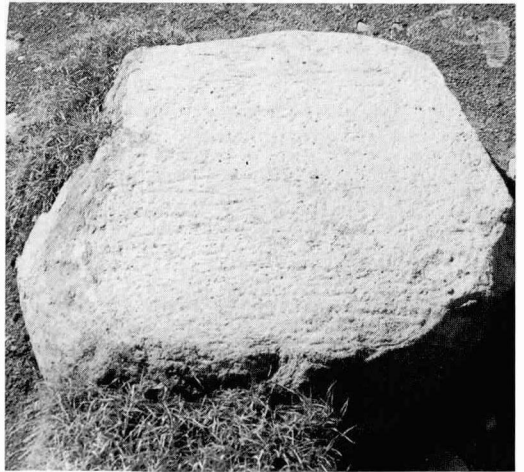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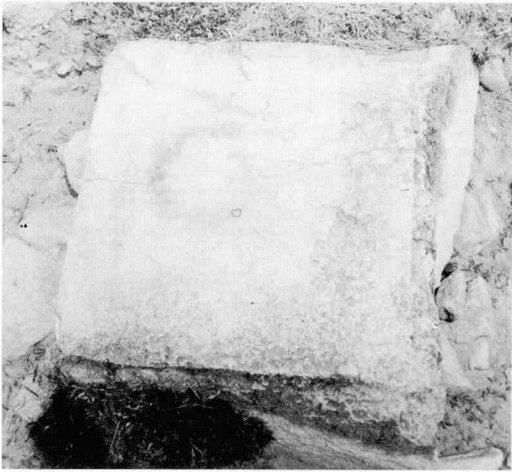


圖 59. 皇龍寺 木塔址礎石



圖 60. 興輪寺址 所在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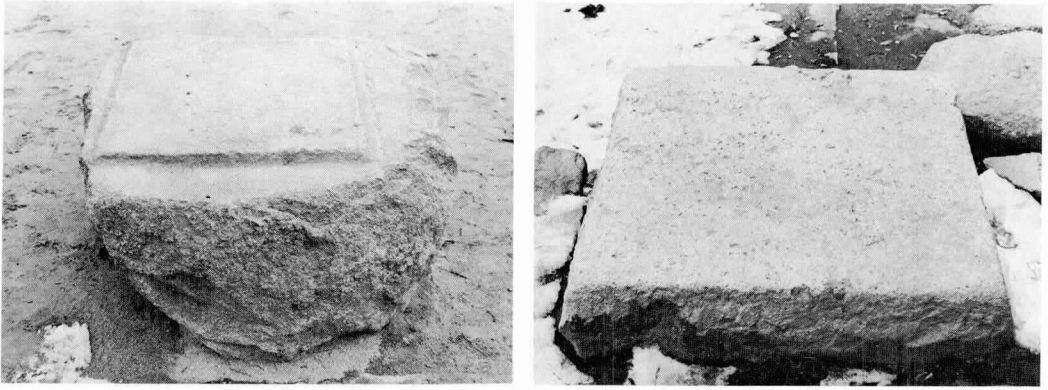


圖 61. 芬皇寺 散在礎石

使用되어 있었다. 우선 金堂에
서는 礎石 밑에 礎石을 安定되

게 놓기위한 一般的인 礎石 積
心을 礎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金堂 東쪽 建物은 礎石
밑에 積心을 놓고 그 밑에 얼마
간의 基壇土를 끼워 다시 圓形
으로 礎石을 깔고 또 基壇土를
넣고 다시 圓形으로 礎石을 까
는 方法을 數回 反復하고 있었

다. (圖版 63 參照) 勿論 築造時

에는 上述의 逆順으로 施工된
것이다. 즉 基壇土 築造時에 미

리 礎石位置에 圓形으로 礎石
을 깔고 또 흙을 넣어 다시며

이런 方法을 몇번 反復하여 그
最上部에 礎石 積心을 놓고 礎

石을 安置한 것이다. 또 講堂
址 左右의 가늘고 긴 建物 밑

은 建物의 壁體 下部에 작은
礎石을 一定한 幅으로 帶狀으

로 돌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쌓아 그 위에 礎石 積心을 놓

는 方法을 擇하고 있었다. (圖版

63 參照) 이들 方法은 高句麗

에서 使用된 바 있는 築造法으

로 金堂 東쪽 建物의 경우우
는 安鶴宮 南宮 第一宮殿의 경우

와 같은 方法인 것 같고, 講堂 左右의 建物의 경우우
는 東垣子遺蹟의 東
쪽 房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皇龍寺址 以外의 古新羅의 遺蹟에서는 아직 뚜렷한 礎石 安置方法이
나 그 下部構造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다.

나, 軸部 및 屋蓋部

古新羅 木造建築의 軸部나 屋蓋部에 關한 直接的인 資料는 지붕을 이
는 기와 以外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高句麗나 百濟의 木造
建築의 樣相을 參考하고 또 거의 全面的인 發掘調査가 進行되고 있는
皇龍寺址의 여러 遺構의 性格 및 얼마간의 文獻資料 등으로 推定考察할
수 밖에 없다.

우선 皇龍寺의 伽藍配置가 遺址에 대한 發掘調査結果 從來 通說이었
던 百濟系統이라 할 수 있는 一塔式伽藍配置로 된 것이 아니고 高句麗
의 典型的인 伽藍配置인 三金堂式伽藍配置 즉 塔을 中心으로 그 東、西、
北쪽에 塔을 向한 金堂 또는 金堂의 建物이 配置되는 形式을 新羅의
으로 變形하여 塔 北쪽에 中心金堂을 配置하고 金堂 左右에 南向한 金
堂의 建物을 둔 形式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分明히 高句麗의 三金堂
式伽藍配置에서 變形한 新羅式 三金堂式 伽藍配置라고도 할 수 있는 形式
이다. 또 앞에서 말한 바 있는 皇龍寺 金堂 東쪽에 있는 金堂의 建物
과 講堂 左右의 가늘고 긴 建物의 礎石 下部 構造가 각각 方法은 다르
나 모두 高句麗에서 그 類形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事實을 감안할
때 皇龍寺의 全體的인 構成을 뚜렷하게 高句麗의 強한 影響을 받아 이
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古文獻에 보이는 皇龍寺 九層木塔^④
建立을 위한 百濟工匠의 參與 說話는 그 當時 新羅에서는 그들의 힘으
로 皇龍寺 金堂과 같은 巨大한 木造建築의 建立은 充分히 可能했으나
高峻한 九層木塔의 建立 經驗이 없었기에 그때 形便에 따라 百濟工匠의
힘을 빌렸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한다면 古新羅의 木造建築의 軸部나 屋蓋部の 形
態 構造등도 당연히 高句麗의 影響을 強하게 받아서 成立되었을 것으로



圖 62. 皇龍寺 金堂東便 建物址東便 土層內積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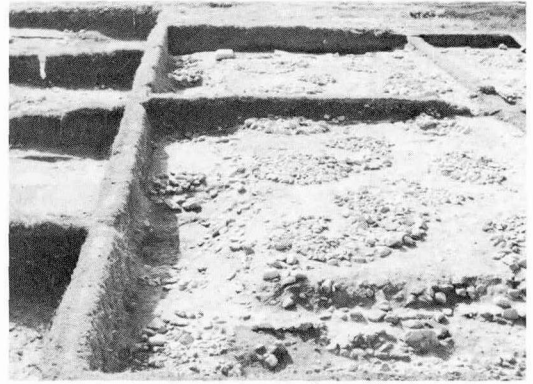


圖 63. 皇龍寺 講堂西便 建物址內 下部礎石帶狀積心

기와에 있어서는 아직 古新羅에 속하는 암막새기와는 確認되지 않았고 숫막새기와와 鷓尾 등이 發見되었다. 숫막새의 紋樣은 거의 百濟와 비슷한 것으로 대부분이 素瓣蓮花紋이다. 그러나 그 末期에는 複瓣蓮花紋이 나타났을 것으로 믿어지나 아직 一般的으로는 複瓣蓮花紋 숫막새기와를 統一新羅時代로 보고 있다.

結 語

三國時代 木造建築의 樣相에

보아야 하겠다. 물론 高句麗의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얼마간의 新羅的인 變形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三國統一 전의 한 때 新羅와 百濟의 親交期가 있었으므로 古新羅의 木造建築에 百濟의 木造建築의 影響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 新羅와 唐과의 交流를 通해 新羅建築에 唐의 建築의 影響이 導入되어 統一新羅時代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관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그것을 究明할 수 있는 資料가 充分치 못해 明確히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간 遺存된 遺構와 遺物 및 그에 관한 資料를 整理 考察한 結果 그나마 從來 明確히 判斷되지 못했던 몇몇 事實이 밝혀졌고 좀 더 考察 究明되어야 할 問題點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建物 基壇에 있어서는 三國에 모두 二重基壇이 存在했고 그 形態는 上層基壇은 地臺石、面石、甲石이 있었고 隅柱를 세웠으나 아직 面石 中間에 끼는 撐柱는 나타나지 않았다. 下層基壇은 高句麗에서는 確認되지 않았으나 百濟 彌勒寺에서는 地臺石、面石의 區別이 없는 長大石 위에 甲石을 兼한 板石으로 된 鋪石이 있었고 新羅 皇龍寺에서는 地臺石、面石、甲石의 區別 없는 長大石으로 만들어 그 上面은 敷埽 處理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三國時代 木造建築 基壇 가운데 二重基壇에 있어서는 元來부터 下層基壇은 地臺石과 面石의 區別이 없는 마치 石造基壇의 退化形式같이 보이는 狀態로 外裝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統一新羅時代에 나타나는 石塔基壇같이 上、下層基壇이 모두 地臺石、面石、甲石 그리고 隅柱와 撐柱가 具備된 것은 新羅에서 復元的으로 發展시킨 形式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基壇構築土는 高句麗에서만 版築法으로 된 것이 確認되지 않았고 百濟와 新羅에서는 寺刹의 主要 建物 基壇에 版築法이 採用되었다. 그러나 아직 비록 確認되지 않는 것이나 高句麗에서도 版築法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礎石은 三國 共히 柱座 없는 方形礎石이 共通되고 百濟에서는 그 밖에 柱座 없는 圓形礎石도 있었다. 그러나 新羅의 礎石이라고 대해서는 좀 問題가 있을 것 같다. 從來 確實한 古新羅의 礎石이라고 一般的으로 認定된 것은 柱座 없는 方形礎石이며 方形臺石 上面에 돌딩 있는 圓形柱座를 刻出한 礎石은 모두 統一新羅時代의 礎石이라고 보고 있는 點이다. 이러한 圓形柱座 있는 礎石이 統一直後에 세워진 感恩寺나 그 以前에 세워진 四天王寺、望德寺 등에서 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礎石이 統一 후 또

는統一直前に突然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以前에 이미發生되어使用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러한礎石은 아무리圓形柱座를刻出하고 있다고 해도 그造形이比較的單純한部材이기 때문에 그어느것이古新羅의 것이고 또어느것이統一후의 것인가를 분간하기는 매우어려울 것이다.

기외에 있어서도 그러한問題가 있다. 高句麗나百濟에서는 암막새기와는存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見解로서筆者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新羅에서도果然 그러했던 것인지疑問스럽다. 古新羅의 암막새기와를 通念적으로素瓣蓮花紋으로된 것만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나果然 統一直後에 그러한華麗하고多様な막새紋樣이 나타나고 그直前인古新羅에서는素瓣蓮花紋 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특히雁鴨池에서發見된 調露二年(六八〇年)에製作된寶相華紋博으로 보아도 그러한 생각을 더욱 깊게한다. 그多様な막새紋樣 가운데比較的單順한紋樣이라 할 수 있는 複瓣蓮花紋이나 혹은 重瓣蓮花紋 등은古新羅末에 이미存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따라서 이들 막새와 짝이되는 암막새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以上과 같은 여러問題點의 究明을 위해서는 今後の關係遺蹟에 대한精密한發掘調査 등으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그와 아울러百濟나古新羅의 木造建築의 軸部 以上の建物本體에 대한考證資料의 出現이 苦待되는 바이다.

〈註〉

- ① 都宥浩「朝鮮의 舊石器文化、屈浦文化について」《考古學雜誌》五十卷 三號、一九六五、東京、孫寶基「公州石壯里無土器文化」《考古美術》六卷 三號、四號 一九六五
- ② 拙稿「韓國堅穴住居址考」《考古學》一、三輯、一九六八、一九七二、韓國考古學會

- ③ 拙稿「古代에 있어서의 新建築技法導入에 關한 推論」《震檀學報》第四六、四七合併號、一九八〇年 震檀學會
- ④ 拙稿「韓國古代建築과 對外交渉」《精神文化研究院》一九八〇、一二、一三發表

- ⑤ 「平壤清岩里廢寺址의 發掘調査」《昭和 一三年度古蹟調査報告》P、九一〇筆者譯

- ⑥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의 調査」《昭和 一二年度古蹟調査報告》「平壤萬壽臺及其附近의 建物址」《昭和 一二年度古蹟調査報告》

- ⑦ 上揭註六、
- ⑧ 上揭註六、P、六六 筆者譯

- ⑨ 上揭註六、P、七八—七九 筆者譯
- ⑩ ⑪ ⑫ 「朝鮮考古學概要」P、二一八、一九七七

- ⑬ 「朝鮮考古學概要」P、二二四、一九七七
- ⑭ 上揭註五、

- ⑮ 上揭註六、P、一〇、
- ⑯ 飯田須賀斯「中國建築の日本建築に及ぼせる影響」P、一〇四、相模書房、一九五三、東京

- ⑰ 上揭註四、
- ⑱ 鈴木敬、松原三郎「東洋美術史要説(下)」P、三六六、吉川弘文館 一九五七、東京

- ⑲ 上揭註一八、P、一三三 參照
- ⑳ 拙稿「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乙酉文化社 一九六九

- ㉑ 拙稿「木造建物屋蓋發生考」《考古美術》一二九、一三〇合併號、一九七六
- ㉒ 「高句麗時代之遺構」圖版 上册、朝鮮總督府、一九二九

- ㉓ 「安岳第一號 및 第二號墳發掘報告」
- ㉔ 「朝鮮考古學概要」P、二一五

- ㉕ 「新唐書」東夷傳 百濟「…俗與高麗同…」

- ㉖ 金載元、尹武炳「金剛寺」國立博物館、一九六九
- ㉗ 尹武炳「定林寺址發掘略報告」油印、一九八〇

②7 上揭註二六、P、六

②8 " P P、七一—一

②9 版築法…元來土城을 築造하는데 쓰이던 築土法인데 후에 무덤의 封土、建物基壇의 築土에 使用되었다. 築土하는 外周에 넓은 板子를 세워서 固定시켜 그 안에 흙을 一〇~一五cm 정도 넣어 나무막대기로 찍어대면서 굳히며 이 方法을 反復하여 必要한 높이로 쌓아 올린다. 扶餘 金剛寺 塔 基壇 築造에 使用된 나무막대기는 굳힌 面에 나타난 자욱으로 보아 直徑 七cm 정도의 나무막대기를 使用한 것 같았다.

③0 上揭註二六、

③1 高句麗의 建築址 調査에서 版築이 確認되지 않은 것은 調査未熟 또는 調査된 遺構數가 적었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③2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昭和一一年度古蹟調査報告〉

③3 上揭註三二、P、四八、筆者譯、括弧內筆者

③4 ③5 上揭註三二、P、三九

③6 上揭註二五 參照

③7 「益山彌勒寺址 東塔址 및 西塔 調査報告」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一九七四

③8 「扶餘佳塔里廢寺址의 試掘」〈昭和一三年度古蹟調査報告〉

③9 伊藤延男 「古建築의 見方」P、二五四、東京、一九六二

④0 上揭註二一、

④1 百濟研究所 「百濟瓦磚圖譜」圖七 參照、忠南大學校、一九七二

④2 上揭註三、

④3 文明大 「芬皇寺發掘調査略報告」〈考古美術〉、一二八號、P、一二、一九七五

④4 金載元、尹武炳 「感恩寺」圖面 一〇、圖版 三八 參照、國立博物館、一九六一

④5 上揭註四四、圖版 一六 參照

「高仙寺址發掘調査報告」圖版 一〇、P、參照、慶州史蹟管理事務所、一九七七

④6 「佛國寺」圖版 五五 參照、文化財管理局、一九七六

④7 「三國遺事」卷第四、塔像第四、皇龍寺九層塔條「……善德王議於群臣 群臣

曰 請工匠於百濟 然後分可 乃以寶帛請於百濟 匠名阿非知 受命而來 經營木石……」
(文化財研究所長)